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중 805호(만성등, 오케이터워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11월 7일(금) 제 3203호

# 전북대 취업률 '정체' 거점국립대 간판 무색

#### 24년628% 전년 동일 '제자리걸음' 전국 평균 밑돌며 겉만 번지르르 지역일자리한계·수도권쏠림여전 인재 유출 악순환…도돌이표

(3) 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위상 에 걸맞지 않은 행보로 지역사회에서 갖은 지탄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북대의 특임교수 남발과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취업률, 주차비 인상, 유학생 실태, 등 문제점을 10여 차례 걸쳐 중점 보도한다. 〈편집 자 주〉

전북대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꾸준 히 상승세를 이어오다 2024년 들어 정 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대학정보공시와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의 2024년 취업 률은 62.8%로, 2023년과 동일한 수치 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평 균 취업률(63~64%)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북대의 취업률은 2021년 59.1%, 2022년 62.3%, 2023년 62.8%로 2년 연 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 년에는 증가폭이 멈췄다. 같은 기간 전 국 평균은 65.1%에서 67.2%로 상승해 격차는 여전히 3~4%포인트 수준이다. 수도권 주요 대학 평균이 69%대인 점 을 고려하면 전북대는 중간권에 머물 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단순히 취업률 수 치 향상에 집중하기보다 학생이 만족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목

표"라며 "현장실습과 기업 연계형 프로 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정 보 부족과 지역 일자리 한계에 대한 불 만이 나온다. 전북대 인문대 졸업생 A 씨는 "수도권 위주의 채용이 많아 상대 적으로 기회가 적다"며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전북대의 낮은 취업률을 단순히 학교 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지 역 고용 구조의 제약으로 본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은 지역 내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 석했다. 실제로 전북 지역은 대기업 본 사와 대형 산업단지가 적어, 졸업생 상 당수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의 사정도 크게 다 르지 않다. 원광대 63%, 전주대 60%, 군산대 61.6%, 우석대 66.2% 등으로 전 국 대학 평균인 66.3%에 미치지 못했 다. 청년층이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 는 기간이 길어진 가운데, 지역 대학의 취업률 정체는 청년 인구 유출을 가속 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 김모 교수는 "전북대가 중간권의 늪을 벗어나려면 단순한 취 업률 경쟁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학협력 강화, 지역 맞춤형 전공 개편, 청년 채 용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

전북대는 연구성과와 재정 확보에서 는 거점국립대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률과 교육투입비 등 학생 체감 지표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 고 있다.



전북대 취업률, 전국 평균 밑돌며 정체

'거점국립대' 전북대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지난해 들어 2023년과 동일한 수치인 62.8%을 기록하며 정 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북대학교>

# 전북도 관광브랜드 슬로건 'HEY! 전북여행' 최우수 선정

#### 총 3,105건 응모작 접수 경쟁 도,최우수1작·우수상4작선정 발굴작 향후 BI 개발 적극 반영

전북도는 전북 관광브랜드 슬로건 공 모전에서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4건 등 총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 관광의 매력과 가치를 담아낼 참신한 슬로건 발굴을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 지 14일 간 진행된 가운데 총 3,105건

의 응모작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모았 정됐다.

1차 심사는 '전북 관광의 매력 전달 력, 타 지역과의 차별성, 표현의 창의성 과 간결성'을 기준으로 진행됐고, 응모 작은 ▲지역특성과 자긍심 ▲한국·한 류 ▲역사와 전통 ▲음식·맛·멋 ▲자 연 ▲여행지로서의 우수함 ▲힐링 등 7 개 주제로 분류되어 총 140건으로 압축

이어 홍보·디자인·관광 분야 전문가 로 구성된 '전북 관광브랜드 자문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수상작으로 결

최우수상에는 'HEY! 전북여행 (History-Experience-Yummy)'이 선 정됐다. 'HEY'라는 흥미 유발 감탄 표 현과 함께 ▲역사(History) ▲체험 (Experience) ▲음식(Yummy)이라는 전북 관광의 대표 요소를 한 단어 안에 함축한 점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에는 ▲'전북, 한국의 맛과 멋' ▲'감.동.맛.춤. 전북에서!' ▲'Feel 전북, Fill 전부' ▲'재밌G 즐겁G 행복하G 전 북여행' 등 총 4작품이 선정됐다. 각 작 품은 전북을 대표하는 맛・멋・문화・정

하여 주목을 받았다.

전북도는 수상작에 대해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응모자 중 2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 제공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현재 추진 중인 '전 북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에 반영하여, 향후 슬로건 및 BI(Brand Identity) 개 발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전북 예산 10조원 돌파하자" 10명 국회의원, 예산심사 총력전

#### 의원별 3건 이상 신규·증액사업 5500억 이상 증액 반영 목표 의원 10인, 30개 사업 공동 발굴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예산을 얼마나 증액반영시킬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6일 전북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전북 도와 협의를 통해 의원 1인당 최소 3건 /최성민 기자 의 신규 사업 또는 주요사업의 증액반 영 등을 통해 모두 5000억 이상을 확보 하기로 했다.

정부가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전북관련 국가사업 예 산이 신규 및 증액 포함 모두 9조 4585 억원이다.

당초 전북도와 정치권은 총 1,541건 에 10조 1,174억원 반영을 정부에 요구 했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의 한계로 인 해 1,228건만이 반영되면서, 전북이 중 점적으로 요구했던 신규사업들이 배제

이에 전북도와 전북국회의원들은 정 책 간담회를 갖고, 각 의원당 최소 3건 의 신규 및 증액 사업을 담당해 반드시 반영시키고, 또한 전북과 14개 시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70개 사업도 동시에 신규 반영 및 증액 반영 시키기로 했다.

전북도는 전북 국회의원 및 전북연고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최소 5500억 이상을 증액반영시켜, 사 상 최초로 10조원 국가예산시대를 열 기로 했다.

국회는 6일부터 예결특위가 정부를 대상을 예산관련 질의에 들어갔으며, 각 상임위별로 예산 증감 심사에 들어 갔으며, 내달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물론 여야 합의 가 있을 경우, 예산심사일정을 1주일 정도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민주 당은 법정 기한인 2일까지 처리하겠다 는 입장이다.

<2면에서 계속>

##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소 결핵 진단'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특허 출원

#### 진단법개발논문 Animals 게재 우태아혈청 활용 검사 정확도 향상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소 장 이성효)는 자체 연구사업으로 수 행한 소 결핵병 진단 관련 연구 논문 이 2025년 9월 1일 SCI급 국제학술지 Animals에 게재되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Fetal Bovine Serum Supplementation Enhances Functional Consistency of IGRA Results in Bovine Tuberculosis Diagnostics"로, 소 혈액에 우태아혈청 (FBS, Fetal Bovine Serum)을 보충할 경우 기존 진단 방식 대비 위음성 발생 을 줄이고 검사 결과의 민감도와 정확 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한 내용이다.

소 결핵병은 사람과 동물이 서로 감 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정 확한 진단과 신속한 차단방역이 중요 /장정철 기자 하다. 이번 연구는 실제 진단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아 축산 방역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현장적 의미가 크다.

연구를 수행한 정재교 수의연구사 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실험 분 석을 기반으로 형성된 연구 성과"라며, "앞으로도 검사 정확도 개선과 진단 기 술 고도화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연구성 과를 바탕으로 2025년 9월 2일 관련 기 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직무발 명으로 등록되어 특허권은 전북특별자 치도 소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 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소 결핵병 진단 정밀도를 높여 도내 축산 방역 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는 현장 중 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지역 축 산업 경쟁력과 국가 방역체계 고도화 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美 관세위기 대응 수출기업 전방위 맞춤 지원

100억특별자금・수출바우처신설 전담반구성해외전시회 예산확대 1:1전문가 매칭·수출보험 지원 기업수요반영선제대응체계구축

전북도는 6일 미국 관세 정책 등 통상 위기에 맞서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시장 다변화, 애로 해소 및 역량강 화 등 맞춤형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 강화로 철 강·알루미늄에 50%의 고관세가 부과되 고 있다. 파생상품과 품목별 관세가 확 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신속한 대응 을 위해 통상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해 △수출기업 특별자금 신설 및 정책자금 확대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및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 △수출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했다. 거치기간 연장지원 600억 원과 긴급대환자금 200 억 원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신흥시장 개척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새로 조성했 다. 해외전시회 참가 예산도 확대해 기 업의 신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개최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기

오는 12~13일에는 120여 개 기업과 80 여 명의 해외 유망 바이어가 참여하는 '2025 JB-FAIR'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에 나선다.

신규 수출국 진출에 필요한 규격인증 를 제공 중이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기업 특 취득 지원을 늘렸다. 관세 리스크 대응 을 위한 통상 전문가 밀착 지원도 강화 했다. 기업과 전문가를 1:1로 매칭해 대 면 상담은 물론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설명회'를 지속

업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방안을 공유하 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 대응 종합대책' 도 수립했다. 1,800여 개 수출기업을 대 신규 판로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 상으로 메일링 서비스·유관기관 홈페이 지 게시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

> 한편 전북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수출보험 지원을 제공 하고 있다. EMS·국제물류비의 50% 지 원 등 국제 특송 및 해외물류 비용 부담 도 경감하고 있다. 수출기업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jbe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장정철 기자

### 조국, 비대위원장 사퇴…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전당대회 23일 청주 오스코서 오늘부터 10일까지 후보 접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 오는 23일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 를 위해 위원장직을 6일 사퇴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 당대 표 직에 출마하기 위함이다"며 이같 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전국을 도는 당원간 담회에서 많은 비판과 조언을 준 당 원 동지들께 감사하다"며 "비대위 를 통해 중요 사실을 깨달았다.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저는 오늘 비 대위원장 직을 내려놓지만 남은 '뉴 파티 비전'도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 탁드린다"며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 달리기"라며 혁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위원장

"비대위에 서 만든 혁 신안을 오 는 23일 선 출되는 차 기 지도부 가 수용해 당의 혁신 을 위해 계

그러면서

속 이어달릴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마련한 혁신안을 차기 지도부가 이 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당은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 고위원 후보를 이날부터 오는 10일 까지 5일간 접수한다.

당은 오는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 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신임 지도 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조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조 국혁신당 원내대표 겸 비대위 부위 원장인 서왕진 의원이 비상대책위 원회 위원장 직무대항을 맡는다.

/서울=김영묵기자

# 道, 고창서 '생생마을 공동체 한마당'…농촌 연대의 장

#### 6일 14개 시군 900여명 참여 우수 농촌활동가 시상·비전 선포 대동놀이 등소통·화합프로그램

전북도는 6일 고창군 군립체육관에서 지역주민과 농촌현장활동가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생생마을 공 동체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공동체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화합하 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 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는 올 한 해 도내 농촌마을에서 추진된 우수 마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14개 시군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상호 교류하 련됐다.

행사는 14개 시군 농촌현장활동가 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레이드를 시작으로 ▲우수 활동가 시상

▲비전 선포식 ▲주민 참여 공연 ▲플 래시몹 ▲대동놀이 ▲강강수월래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시·군별 중간지원조직 홍보 부스에서는 올해 우 수 성과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 농촌현장활동가는 "농촌 소멸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간 지속 적인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행 사를 통해 현장활동가의 역할을 도민들 께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소명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 업국장은 "농촌 활력을 위해 헌신해 주 고 계신 농촌현장활동가와 마을 주민들 며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 께 감사드린다"며 "도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활동가



전북도는 6일 '공동체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화합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고창군 군립체육 관에서 지역주민과 농촌현장활동가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생생마을 공동체 /장정철 기자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 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진=전북타임스>

<1면에서 이어짐>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이 신규 반영 및 증액 반영시키기로 한 사업은 30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들 30개 사업 중 국립모두예술컴플 렉스건립, 협업지능피지컬 AI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조성, 디지털 트윈기반 사용후 대터리 재자원화 최 적화 센터구축, 고창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조성 등 4개 사업은 증액사업 이고, 나머지 26개 사업은 신규 반영사 업이다.

다음은 의원별 사업이다.

스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 화 분관건립,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이성윤의원 AI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건립, 삼천 세내역사문화 마당 조성사업,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정동영의원 협업지 능 피지컬 AI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전북 전주AI 가상융합 미 래기술 실증혁신기반 조성, 고래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K-LAKE조성 ▲신

영대의원 국립의용소방대연수원 건립 자율주행 상용차 실환경 모사기반구 축, 디지털트윈기반 사용후 배터리 재 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 ▲이춘석의원 국립익산식품관 관립, 석재산업 지원 센터건립,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한병도의원 동물용의약품 임상 시험센터 구축, 익산왕궁 자연환경복 원사업, 한의임상교육센터 설립 ▲윤 준병의원 기초연구인프라 우주방사선 영양평가용 연구시설구축, 고창용계리 청자요지 역사공원조성,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이원택의원 새 ▲김윤덕의원 국립모두예술컴플렉 만금 국가정원조성, 농업로봇 핵심기 술 개발을 위한 시설농업로봇 실증기 반 구축, 부안군 탄소중립체험관 건립 ▲박희승의원 AI기반 차세대 엑소좀기 술 및 표준화개발, 순창군 공설추모공 원 조성,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안호 영의원 전북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 원 조성 등이다.

/서울=김영묵기자

# 전북도, 국비확보 '속도전' 2027 신규사업 조기 발굴

#### 사업 조기 발굴 1차 보고회 열어 166건 2천억 규모 신규사업 선정 연내 2차 보고 8천억 확보 목표

회를 개최했다.

재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방향성이 도출됐다. 건설교통국 등 행정 분야 실국을 대상 12월부터는 전북연구원과 국책사업 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00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선정했 사업 발굴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 2028년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171

국가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 큼 사업발굴 선제대응 및 향후 추가 발 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

정부가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 전북도가 6일 2027년 국가예산 확보 감된 예산을 AI, 에너지, 복지 등 미래 를 위한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략분야에 재투자하는 기조로 전환함 실국별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1차 보고 에 따라 전북 역시 기존 SOC 중심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연계 및 미래 신성장 이날 보고회는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 분야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으로 진행됐다. 오는 10일에는 김종훈 발굴추진단을 풀가동, 대형 국가예산 사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 분야 실국 회 업 발굴에 나선다. 도지사 주재 2차 보 고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 도는 이번 1차 발굴을 통해 2027년 년 부처안 확정 전인 4월까지 국비 요구 반영을 목표로 총 166건, 국비 요구액 액 8,000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신규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중기사업



하는 1차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은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차도 적기에 완료해 2027년 정부예산 리 준비가 뒷받침돼야만 실제 반영으로 안에 발굴사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이어질 수 있다"며 "전북연구원 등 외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 부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

건, 총사업비 16조 7,499억 원에 이른다.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 가예산은 선제적인 발굴과 충분한 논 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6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실국별 추진 전략을 점검 <사진=전북도> 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국 신규사업 발굴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 /장정철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수최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 온누리안은행행사마련 사회적인식확산문화정착목적

전주시보건소 김신선 소장은 '제7회 장 기기증 대국민 인식 제고 위한 문화공연' 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빛을

영리 장기기증단체 사단법인 온누리안 알렸다. 은행이 마련한 행사다.

산과 생명나눔 문화 정착에 목적을 뒀다. 공연은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 부 기념식 및 관계자 표창 2부 문화공연 으로 진행됐다.

선사하기 위해 '2005년 12월 설립된 비 한 긍정적 가치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기기증 인식 및 참여가 서울 등 대도시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발표한 특히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 '2024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 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장기기 사표시를 하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 증자 수는 전국 2377명, 전북 17명이며, 청을 연중 받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전국 70563 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 다. 이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지역 장 다.

비해 낮은 자료로 나타났다.

전주시보건소는 뇌사 또는 사망에 이 르렀을 때 장기·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보건소 또는 국 명, 전북 2992명, 전주 767명으로 집계됐 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

/정소민 기자

# 전주 북부권 운수종사자·시민 위한 '쉼터' 운영

#### 호남제일문 간이정류장 인근 휴식공간·공중화장실신설

전주 북부권에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안락한 쉼터가 마련됐 버스 간이정류장 인근에 '북부권 교통안 전쉼터'를 조성하고 오는 7일부터 운수 라고 6일 밝혔다.

사업은 해당 지역에 별도의 공중화장 실이 없어 택시 운수종사자와 시외・고속 버스 이용객들이 장시간 대기 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 조성된 북부권 교통안전쉼터는 연중 24시간 개방된다. 다. 전주시는 호남제일문 인근 시외·고속 총 50㎡ 규모(쉼터 16㎡, 화장실 32㎡)로, 운수종사자 휴게공간과 남녀 화장실, 테 이블, 정수기, 냉·난방기, 도서, 휴대폰 충 종사자와 시민들을 위해 개방할 예정이 전기,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출입 객, 인근 지역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 가겠다"고 말했다. 관리시스템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는 복합형 편의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

쉼터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시간 을 고려해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개방되며, 공용화장실은

하루 평균 2500여명의 시외·고속 버스 승하차 이용객, 전주월드컵경기장 방문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북부 권 교통안전쉼터는 장시간 도심 곳곳을 누비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자, 대중교통 이용객 시는 이 공간을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과 시민 모두에게 열린 편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시민 편의를 함께 고려한 생활SOC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출범

#### 7일 위원회 첫 회의 개최 26년부터 전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브랜드 시중 판매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새롭게 탄생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 '전주한옥애뜰'을 보유하게 됐다. 사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지역에서 생 산된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브랜드 통합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유일하게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보유 하고 있지 않아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옥의 품격과 전주 농가의 정성, 소비자

시는 이날 위촉된 위원들과 전주시 관 계자, 전주시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담당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한 가운데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운영과 사용 관리, 홍보 활성화 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쳐 왔다.

시는 공동브랜드가 단순한 상표등록이 에 대한 사랑을 담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아닌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포장과 유통 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의 신호를 주 는 제도인 만큼 내년부터 공동브랜드를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용한 농산물 출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출시를 를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전주시 농산 위해 23년부터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

>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전주시 농산 물 공동브랜드 한옥애뜰과 이번 관리위 원회는 브랜드 운영체계를 공고히 하고, 생산 현장부터 소비 현장까지 전 과정에 서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전주 농산물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 > /정소민 기자

#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주차이용 편의 '개선'

#### 상권 이용 고객들에게 1시간 무료 이용권 제공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를 이용하는 시 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들의 주차 편의가 높아진다.

전주시는 올해 '2026년 전통시장 주차 맺은 주차장 이용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 객들에게 제공하게 됐다. 시는 전북대 대 환경개선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실시 주 핵심이다. 차장 이용보조 사업에서 전북대대학로

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전주실내체육 통한 상인회 지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상점가 이용 고객에게 협약을 관 주차장 1시간 이용권을 상권 이용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는 전주시 시설 터 무상 민간위탁과 인건비 지원사업을 /정소민 기자

## 고용노동부전주지청-노사발전재단호남지사 '공감 통한' 협업 추진

#### 고용차별예방사업장자율개선유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영철 전주지청 장-노사발전재단 강수영 호남지사장은 선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차별 예 방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및 사회적 경조성을 위해 두기관이 힘을 모았다. 약자들이 부당한 차별로 인권을 침해받 지 않도록 고용차별예방·사업장자율개

더불어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 장 고용차별 문제 해소와 공정한 노동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차별 이슈가 늘어 남에 따라 이주노동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시했다. 교육에는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 실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차별 예방 가이드라

인 및 사례 공유,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 체불 예방 강화, 근로감독 주요 위반 사 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실 용사업장 30개소가 참여했다.

/정소민 기자

## '2025 전라북도 행복멘토링대회' 개최… 도내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 14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참여 특강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 진행

지난 5~6일 도내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위한 '2025 전라북도 행복멘토링대 회'가 개최됐다.

'2025 전라북도 행복멘토링대회'에는 련됐다.

전북도 사회복지행정연구원 박은주 회 장 및 14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진행 됐으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경험담 소 램 등이 꾸며졌다. 통과 함께 업무 전문성 위한 연찬으로 마

대회 중요 프로그램으로는 △김용규 다. 강사 '숲이 건네는 위로와 지혜의 말' 특 △아로마 감정오일 테라피 체험 프로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찬 프로

첫날 이학수 정읍시장이 현장을 방문 다. 해 참가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 했

박은주 전북도 사회복지행정연구원 회 강 △참여자 간 멘토링 및 사례 공유간 작은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따뜻한 현장 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청,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금전편취 한 피의자 6명 검거

#### 전국 피해자 174명 약 3억4천만원 편취

전북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는 중고거 들이 직접 개설한 허위의 중고거래 사이 래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자들에게 접근 트로 유인했다. 한 뒤, 피의자들이 직접 개설한 허위의 취한 피의자 6명(구속 1명, 불구속 5명) 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방, 모바 송금해야 풀린다"고 거짓말하며 금전을

일 상품권, 콘서트 티켓 등 물품을 판매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의자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전을 편 면 즉시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 이 상품을 등록하자, "대금을 입금했으나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보고로 계좌가 동 피의자들은 2025년 4월경부터 5월경 결됐으니, 판매자가 동결된 금액을 대신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 허위로 제작된 가짜 사이트였으며, 금 융기관의 보고나 계좌 동결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174명으로부터 약 3억4000여만원을 편 취한 것으로 보고, 주범 1명을 구속하고, 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강력히 단속하겠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악용해 허위 사이트 가입 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 시 낯선 사이 실제로 해당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위 트로 이동을 요구하거나 '계좌동결 해제'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 피 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또 "이와 같은 유사 수법으로 서민경제 를 침해하는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해서 다"고 밝혔다.

> >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과 5일 제80주년 경찰청장기 경찰관 무도사격대회에 서 여자부 유도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 전북경찰청, 경찰관 무도대회서 유도 금메달

#### 신송하순경유도여자개인전우승 전북청첫여자유도금메달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 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 제80주년 경찰청장기 경찰관 무도 사격대회에서 여자부 유도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회는 경찰관의 체력증진, 현 장역량이 강한 경찰상을 구현하 기 위해 경찰청 및 부속기관, 17개 시·도청 대표 경찰관 선수들이 참 가해 사격·유도·검도·태권도 등 4 개 부문을 겨루는 자리이다.

신송하 순경은 '유도 4단'으로 현 재 완산서 통합수사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대회에서는 아쉽게 8

강 진출에 그쳤으나 1년 동안 유도 도장을 꾸준히 다니며 어느때보다 땀 흘려 훈련하였고 그 결과 결승 에서 마지막 부산청을 제치고 오 늘의 우승에 이르렀다.

전북청이 출전한 무도·사격대회 에서 사격을 제외한 무도(태권도・ 검도·유도)부문에서 여자부 금메 달은 신송하 순경이 최초이다.

특히 이번 우승은 신송하 선수와 더불어 약 20년 동안 전북청 유도 대표팀을 이끈 완주서 경비안보과 장 백창은 감독, 유도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무도특채 김현철 경 사의 열성적인 코칭과 노력, 3박자 가 이루어낸 귀중한 선물과도 같 은 결실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 어린이 눈높이 안전문화 확산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오 는 24일까지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 불조심 생활 화 및 안전 공감대 형성을 주제로, 어 린이들이 직접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안전문화의식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데 목적을 뒀다.

공모 대상은 완산구 초등학생 및 12 세 이하 어린이로, 화재예방 관련 손 그림 포스터(4절크기, 39.4x54.5cm) 를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불조심, 화

재예방, 안전생활 등 자유 주제로 구 성할 수 있으며, 1인 1점만 응모 가능

접수는 전주완산소방서 대응예방 과(2층)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 며, 접수 마감은 11월 24일이다.

작품은 11월 중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며, 수상자는 12월 2일 전주완 산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 이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자체심사 결 과 최고 득점 작품 4점을 전주완산소 방서 대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 부에 출품한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초등학생 대상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진행

#### 오는 21일까지 1인 1점 제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지 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어린이 불조심 손그림 포스 터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스 스로 화재예방의 의미를 생각하고, 생활 속 안전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 현하도록 돕는 참여형 안전 문화 프 로그램이다. 소방서는 아이들의 순수 한 시선과 창의력을 통해 불조심의 가치를 확산하고, 가정과 학교로 이 어지는 안전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모전 참여는 1인 1점으로 제한되 며, 화재예방을 주제로 한 4절 크기 손그림 포스터를 원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전주덕진소방서 대응예 방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

참가신청서와 작품 뒷면 캡션 부착 등 기본 제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는 전주교육 지원청 교육장상과 전주덕진소방서 장상 등 상장이 수여되며, 우수작 일 부는 전북소방본부에 출품될 예정이 다.



전라초 황수연 작품 2024년 최우수상

소방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 이들이 안전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현실 속 중요한 가치로 체감하게 되 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올바 른 난방기 사용 습관, 성냥·라이터 접 근 금지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그림 속 상상력을 통 해 더 널리 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역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 로 펼칠 계획이며, 공모 관련 문의는 대응예방과(063-250-4241)로 하면

/정소민 기자

# ㈜크로스허브, CES 2026서 '최고혁신상' 수상

### 아이디블록・블록페이 세계 시장서 핀테크 기술력·혁신성 인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 력을 인정받은 제품만이 선정된다. 파크 이규택 원장은 세계 최대 전시회 'CES 2026'에서 ㈜크로스허브(대표 김 재설)가 핀테크(FinTech) 부문 CES 최 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 Awards) 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은 주관기관인 미국소비자기 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CES 참가 제품 중 디자인 · 엔지니어링 · 기술 완성도 · 시장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권

특히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각 부문별 평가점수 최 상위 제품에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세계 시장에서 혁신성과 기술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

㈜크로스허브는 단기 방문 외국인 위 한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및 간편 결제 서비스 'Financial Passport by IDBlock(아이디블록) and B·Pay(블록 페이)'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된 서비스는 해외 단기 방문객이 현지에서 앱 서비스나 결제 기능을 이 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블록(IDBlock)'은 분산신원인 증(DID)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신뢰 성 높은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블록페이(B·Pay)'는 이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기능을 통합해 배달, 모빌리 세계 최대 전시회 'CES 2026'는 오는 티, 숙박 예약,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 한 생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 참가를 계기로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의 지원을 받아 전북 도내 기업 8개사 (㈜크로스허브, ㈜하다, ㈜에어랩, ㈜ 펀잇, ㈜모스터일렉(단독관))의 CES 다. 2026 전북 공동관 및 단독관 참가를 지

지원항목은 CES 부스 임차 및 디자 인 설치, CES 혁신상 컨설팅 및 신청비 용, 항공·숙박비(일부), 통역, 디렉토리 북 제작, 홍보 등이다.

(재)전북테크노파크의 이규택 원장 은 "㈜크로스허브의 CES 최고혁신상 수상은 전북 지역 스타트업이 보유한 ㈜크로스허브는 이번 수상 및 CES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세 계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쾌 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혁신기업들이 CES와 같은 국제 전시회를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판로를 개척 퓨처덕, 딥세일즈㈜, ㈜엘앤디테크, ㈜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

/정소민 기자

# 롯데백화점 전주점, 동절기 화재 예방 '강화'

#### 민관 합동 실제 상황 가정 대응·대피 훈련

일 오전 9시 40분부터 동절기 화재 예방 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완산소방서,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체 계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으로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 직원이 참 여해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 응 및 대피훈련을 진행했다.

또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진압 및 인

명 구조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의 안전 확보와 화점의 제거를 목표로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 훈련에는 유관기관 의 구조차와 소방용 구급차, 고가사다리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은 6 차, 굴절차 등의 차량과 장비가 동원됐

롯데백화점 전주점 안전관리팀 홍정 덕진소방서, 서신119안전센터와 함께 표 팀장은 "동절기에는 화재 위험이 높 아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 하다"고 말했다.

> 이어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고객이 안심하고 방 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6일 오전 9시 40분부터 동절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완산소방서, 덕진소방서, 서신119안전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 농진청, 감귤 부산물 자원 순환 기술 개발

### 악취 저감제 해충 유인제 등 친환경자재로 재탄생

물 자원 순환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

이에 따라 감귤부산물은 악취 저감제. 해충 유인제·토양 개량제 등으로 재활용 되는 친환경 자재로 재탄생된다

지난 2024년 기준 한해 감귤부산물은 4만 톤가량 발생하지만 대부분 폐기하거 나 축산 농가용 사료로 단순 활용되고 있

이에 연구진은 부산물 활용 다각화를 목표로 부산물 약 30%를 차지하는 침출 수(탈리액)는 악취 저감제와 해충 유인제 로 약 70% 차지하는 고체 상태의 껍질과 펄프(과육)는 토양 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악취 저감 미생물제는 감귤 부산물 침 출수(탈리액)를 살균, 중화한 뒤, 유산균,

고초균, 효모 등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이렇게 개발한 악취 저감제를 양돈 분 뇨 저장조 2곳에 투입한 결과, 주요 악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감귤 부산 취 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각각 91%, 99% 감소함을 확인했다.

> 실제로 문뇨 악쥐들 제거한 액비는 문 뇨 처리업체에서 저렴하게 수거해 2000 마리 규모 양돈 농가 기준 연 소득 3700 만 원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 친환경 해충 유인제는 감귤즙을 짜는 과정에서 나오는 리모넨 성분을 이용해

리모넨과 페로몬을 조합해 만든 이 유 인제는 고구마, 인삼, 배의 잎과 뿌리에 피해를 주는 큰검정풍뎅이 암컷 유인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중에 판매되는 리모넨을 직접 구매해 유 인제를 만들 때보다 비용을 70% 절감할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감귤 부산물 자원 순환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귤부 산물은 악취 저감제·해충 유인제 등으로 재활용되는 친환경 자재로 재탄생된다

감귤 부산물의 리모넨을 활용하면 시 이 자재는 질소·탄소 비율과 인·칼륨 등 영양분 함량, 배합 물질을 조절해 작물

토양 개량 자재는 고체 형태인 껍질과 다 물을 머금는 능력(보수성)이 50% 이 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펄프를 원료로 만들었다. 땅심을 기르는 상 향상돼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약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감귤 부산물 제 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환경성 평가를 특히, 흙에 섞어주면 기존 토양 지재보 추진해 감귤 폐기물 활용 법령 개정의 기 /정혜민 기자

90% 줄일 수 있다.

중김제농협실키핑크토미토 전국롯데미트 첫출이 🥥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과 동김제농협 최진오 조합장은 지난 5일 실키핑크 토마토 롯데마트 첫 출하 상차식을 가졌다.

#### '실키핑크토마토' 롯데마트 첫 출하

김제서 전국 매장으로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과 동 김제농협 최진오 조합장은 지난 5 일 실키핑크토마토 롯데마트 첫 출 다. 하 상차식을 가졌다.

서만 생산되는 전북농협 고품질 토 마토다.

토마토는 은은한 분홍색 과육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고 있다.

'실키핑크토마토' 출하 상차식은 있다. 동김제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진행

특히 '실키핑크토마토'는 일반 방 울토마토보다 당도가 높아 입안 가 득 달콤한 맛이 퍼지는 것이 특징이

전북농협은 롯데마트 전국 매장 '실키핑크토마토'는 김제 지역에 입점을 통해 '실키핑크토마토' 소비 자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안정적 소 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롯데마트 전국 주요 매장 에서 '실키핑크토마토'를 만나볼 수

/김영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5년도 하반기 중대재해 발생을 대비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 응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 LX,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응 훈련

2025년도 하반기 중대재해 발생을 대 한 보고 및 전파를 점검했으며, 각 부서 비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응 훈련을 별 임무를 명확히 했다. 실시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가정한 실전형 모의훈련으 로 진행됐다.

특히 어명소 사장 주재로 안전관리처, 했다. 자산관리처, LX파트너스 등이 모두 참 여해 협력적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확립하는 점검했다.

일까지 지하 기계실 등 실제로 사고 발 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토대로 이어졌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 발생 시 신속

안전관리처는 초기 대응을 총괄하고 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 및 사업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며 자산관리처는 밀폐 작업 관리, 구조와 후송 지원 등을 수행하는 등 실제 재난재해 발생 시 혼 선이 없도록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

어명소 사장은 "관련 부서 및 협력사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이번 훈련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5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 고 직원과 협력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 중기중앙회 "ESG 이행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 ESG 경영 확산 정보 공유 환경규제 대응력 제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제2차 환 경·ESG 위원회를 6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위 위해 구성됐다.

대표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 다.

재활용과장이 'EU 에코디자인법(ESPR) 및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국 내 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 형 에코디자인법 도입 필요성과 EU 제 도와의 차이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최상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 과정평가실장이 '환경라벨링 제도 및 중 소기업 지원사업'을 주제로 환경정책 방 향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시제도를 소개했으며, 이후 제도 특징과 혜택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더불어 △ESG 주요 규제 등 관련 현 한 정보 공유 및 환경규제 대응력 제고 안 공유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 위원에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정책협의회 등 업계의 환경규제 대응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환경규제 대응 이날 맹학균 기후환경에너지부 자원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 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화 추진 등 국내 중소기업 ESG경영



이상훈 환경·ESG위원장은 "한국형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제2차 환경·ESG 위원회를 6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에코디자인법 도입과 국내 ESG 공시 의 ESG 경영 확산 위한 정보 공유 및 환경규제 대응력 제고 위해 구성됐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중소 세한 지원과 현장 의견청취, 중소기업 했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기업 ESG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의 섬 ESG 경영 참여의지가 중요하다"고 말 /정혜민 기자

##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 육성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 화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 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 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 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 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 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체계가 부족해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 준히 제기돼 왔다.

특화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 혁신형, 도전 도약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 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 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5

# '전북 GPT'로 수업 환경 대폭 개선한다

### 생성형 AI '전북 GPT' 정식 오픈 최적화된 답변 비교·분석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용 소프트 웨어(SW) 3종을 지원한 데 이어 최근에 는 '생성형 AI 서비스(전북 GPT)'를 정식 오픈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Graphics(그래픽 제 작) △전북Writing(글쓰기 첨삭) △전북 Quiz(퀴즈·보드 활동) 등 기존 3종과 더 불어 전북 GPT(생성형 AI)까지 총 4종의 강력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갖 추게 됐다.

업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획기 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제미나이(Gemini) 2.5 Pro 등 최신 AI 모델을 교사들이 직접 선택,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질문의 성격에 따 라 최적화된 답변을 비교·분석할 수 있 는 것이 장점이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접근 편의성을 경써주어 감사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높이기 위해 업무용 메신저 퀵메뉴에 바 이번에 보급한 '전북 GPT'는 교원의 수 로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3종 소프트웨어를 학교3.0 포털을 통해 손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 일까지 진행된 교사 시험 운영에서는 현 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 중학교 교사는 "근무 중 궁금한 사 다. 항을 바로 입력해 알 수 있어 정말 좋다"

도내 모든 학생과 교원은 학교 계정을 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초등교사는 "수 발급받으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업을 구상하는 데 채팅을 활용했는데 아 주 유용했다. 교육청에서 교원을 위해 신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용 SW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은 덜고,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소 정식 오픈에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22 프트웨어와 AI를 활용한 즐거운 수업으 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

/최성민 기자

전북교총 "교과서 청렴조사 즉각 중단해야"

국민권익위에 강력 유감 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이하 전북교총)는 국민권익위원회 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관련 콘텐츠가 포함된 교과목 및 교과서 출판사 현황'을 조사하도 록 한 공문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 달된 사실에 대해 학교 자율성과 교 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행정 간섭 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번 조사는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를 근거로 학교별 교과서와 학년별 청렴 관련 단원 및 교과목 현 황을 엑셀 양식으로 작성·보고하도 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과서 채택 및 출판사별 현황까지 포함돼, 학교 의 교육과정 운영권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 어지고 있다.

전북교총은 "청렴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 부나 교육청의 권한 영역을 넘어 교

과서 내용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행 정권의 월권"이라며, "특히 이번 조 사 결과가 청렴정책 실적 자료나 기 관 평가 지표로 활용될 경우, 학교가 자율적 교육활동을 기획·운영할 여 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

또한 전북교총은 "교과서의 청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면 국가교육 과정만 분석해도 충분하다"며 "교과 서는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 되며, 이미 교육부 심의와 검정을 거 친 공적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

전북교총은 "굳이 학교별 교과서 목록을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 한 요구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 래할 뿐 아니라 자칫 학교 간 비교와 평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

전북교총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중앙기관의 개입은 교육과정의 정치 적 중립성을 흔들 수 있으며, 오히려 청렴하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될 위 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 골프, 전국체전 '최고 성적' 옛 명성 되찾아

### 남자 일반부 단체전 금메달 등 골프 메카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 선)에 따르면 한동안 주춤했던 전북 골 프가 지난달 막을 내린 전국체육대회에 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비상하고 있다.

전국체전 당시 골프 남자 일반부 단체 전에 나선 안해천(한국체대), 김태규(성 원고), 김하민(만경고)은 호쾌한 드라이 브 샷과 정교한 아이언 샷을 선보이며 금 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해천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 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고 이같은 좋

은 성적으로 골프종목 종합 2위를 달성 함과 동시에 1,25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전북 선수단에게 선물했다.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 던 것은 이영국 전북골프협회장의 든든 한 지원이 한 몫했다는 후문이다.

'전북을 골프 메카로 만들겠다'는 이영 국 회장은 선수 지원 및 각종 대회 유치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고 도내 고등학교 골프 특기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

또 이 회장은 전북도체육회 부회장으 로도 활동하며 골프 종목을 넘어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한동안 주춤했던 전북 골프가 지난달 막을 내린 전국체육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비상하고 있다.

# 전북대, 미래 비전 선포 "대학과 지역 함께 성장하겠다"

#### RISE사업단연구클러스터 구축등4대추진전략제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6일 전북 대학교 RISE사업단 비전 선포식을 열 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 형 혁신 플랫폼'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전 업지원 등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묵특별자치도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 국장(도지사 대리), 전북RISE위원회 위원, 전북RISE센터 채수찬 센터장, 도내 대학 RISE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전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전북 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도약을 향 한 출발점"이라며 "Resilience(회복력), Initiative(주도성), Sustainability(지속가능

성), Empowerment(역량강화)의 네 가지 핵심기치를 비탕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 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 다.

이어 전북대 RISE사업단의 비전 슬로 건 '더 전대 라이즈 플러스(The JeonDae RISE+)'를 중심으로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협력 확대 △창업·청년기

특히 'JB-스타트업 캠퍼스' 구축을 통하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이 이어지는 지역 창업 허브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대 공과대학 양오봉 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비 전자공학부조형기교수의 '2026 CES 혁신 상' 수상 시례가 소개돼, RISE사업이 지역 보여주었다.



전북대학교는 6일 전북대학교 RISE사업단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 하는 '전북형 혁신 플랫폼'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산업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대학이 하나 전하는 지속 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만드 로 연결되는 '전북형 혁신 모델'을 완성해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는 RISE사 나가겠다"며 "청년이 머물고 산업이 발

는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지자체, 유보통합 실현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변화하는 유보 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행력 제 있다. 고에 나선다.

'교육정-지방자치단체 유보통합 업무담 당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유 보통합 업무담당자, 도청 및 시·군 보육 업무담당자 등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기 크숍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 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직원들과 교육지원 청 유보통합담당 장학시들이 한데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강에는 이병승 교육부 영유아교원지 전북교육청은 6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원과장이 참여해 '유보통합 정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수제로, 이재병 정부 의 유보통합 주요 정책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워 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협력 도교육청·도청의 협력뿐 아니라 기초 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유보통합을 이 뤄 우리 아이들을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아름다운 가을 산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 쓰레기는 확실히 처리하기



내가 만든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는 것이 원칙!

### 자연그대로 보전하기!

산행중 아름다운 자연에 홀려



꽃을 꺾거나, 에쁜돌 챙기는 행위 금지!

### 야생동물 존중 하기

등산 중 마주친 야생 동물은



위협하거나, 해치지 말아 주세요.

#### 군산시 '장애인 생산품 전시 행사' 성황…일자리 안정·자립 지원

군산시가 6일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장 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 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판매전은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주관으로 군산추진장애인보호작업장이 참 여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 한 세제, 수건, 제과류, 생활용품, 행정 사무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였다.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 격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장 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동참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 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경제활동 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생산품 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 확대를 통해 장 애인 일자리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독감 환자 '3배 이상 급증' 정읍시,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1년 전보 다 3배 이상 급증하며 '10년 만에 최악'의 유행이 우려되자 정읍시가 시민들의 신속 한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도 인플루엔자 유 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정읍시는 6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접종 참 여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 행이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일찍 시작됐으 며, 올겨울 지난 절기처럼 크게 유행할 가 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다행히 치료 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예방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의 적기 접종을 독 려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60세 이상 시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능도 무료접송 사업 대상자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적극적으로 접종해 주시길 바 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3차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읍시가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기업 사업주와 안전보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 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민간사업장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 본부장을 역임한 고광열 강사를 초빙해 진 행됐다. 고 강사는 사업장 중대재해 사례 및 대응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 한 위험성평가 방법 등의 내용으로 강연했 다.

교육에 참석한 민간기업 사업주와 안전 보건 담당자들은 실제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강의 덕분에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조치와 대응 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었으며, 겨울철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큰 호응을 보냈다.

이학수 시장은 "겨울철 한파, 미끄럼 그 리고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고 위 험이 높아지는 만큼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 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며 "산업현장의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 교육이 각 사업 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지 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 수산업 재도약의 힘찬 '출항'

### 수산식품단지 핵심 거점새만금스마트 수산가공단지 기공식

군산시가 6일 글로벌 K-씨푸드 선도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다짐했다. 도시 도약의 전진기지가 될 '새만금 스 마트 수산가공단지'(이하 '스마트 수산 가공센터')과 민간입주기업(11개소)을 포함한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 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시는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위축된 지역 수산업을 첨단 스마트 수 산식품산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출발 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도·시의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식 품연구원을 비롯해 관내 식품기업, 어 업인단체, 지역대학의 관계자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수산산업과장의 △사업 경 과보고 △내빈 인사 △수산식품단지 구성원·입주기업·지역어업인의 시삽 △상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만금 시대를 여는 군산 수

본 시설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381억 규모의 연 구개발(R&D) 중심 공공시설이자 수산 식품단지'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핵심 거점 공간이다.

특히, 과기부 산하 식품전문기관 한국 식품연구원이 초기부터 참여해 수산식 품 분야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

이로써 보다 높은 식품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적 용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는 지난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이르렀다.

기업지원 인프라 시설로 '해수 공급 및 배출기지'와 '내부도로' 공사를 위해 서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에도 전북특 별자치도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총 230억 원을 투입해 작년 6월 착공·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군산시는 앞으로 고부가가치 김산업 수출전략기지를 조성하는 한편, 수산가 공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K-씨푸드의 핵심인 김의 일본 프리미엄 시장 진출 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간척 이 후 군산 수산업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민선 7기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 본 사 업이 첫 삽을 뜨게 돼 감회가 새롭다" 라며,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단지를 중 심으로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우리 시가 글로 벌 K-씨푸드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 청년농업인에 '월 110만원' 지원한다

영농정착지원자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2026년 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해 올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 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 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안 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이거나 영농예정자인 청년들이다.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3 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월 90만원에 서 110만원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 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은 "영농에 관심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적 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 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조류독감 방어 '총력'

익산시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 산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 하고 전면 대응에 나섰다.

시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북 지역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 함에 따라, 지역 내 전염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6일 밝 혔다.

특히 전북권역에서 야생조류를 통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 역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우선 시는 만경강 철새도래지와 주 요 하천 주변에 소독·예찰을 집중 강 화하고 있다. 철새 서식지 인근에는 이 동 통제초소와 발판 소독시설을 재정 비했으며, 소독차량과 인력을 매일 투 입해 차량·인원 통제 및 야생조류 접 근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 고, 지역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 행 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 미래 동물헬스케어 중심지 '우뚝'

#### 신기술실증~상용화까지 규제자유특구 후보지 선정

익산시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 유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며, 미래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 다. 반을 다졌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중소벤 처기업부 공모에서 후보로 선정된 특 구 사업은 동물의약품 산업을 육성하 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본지정이 확정될 경우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던 신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실증하고, 상용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최종 지정 시 2027년 부터 2030년까지 총 45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시가 2020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 해온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전망이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우선 1단계인 '동물용의약품 효능·안 전성 평가센터'는 지난해 준공돼 운영 중이다.

2단계 시제품 생산시설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시는 3단계인 임상시험센터 유치를 위해 중 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약품평가연구원이 총괄기관을 맡아 추 진되며, 지역 기업들이 실증에 직접 참 여하게 된다. 실증 결과는 국내 제도 개선과 산업

표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후보 특구 선정은 익산이 동물의약품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라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과 전주기 지원체계를 통해, 대한민국 동물 의약품 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 실전 중심 청년 취업 캠프 '호응'

#### 자소서부터 모의면접까지 참가자 95% 이상 만족

익산시는 지역 대학생 등 청년 45명 다. 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익산지역 대 학교 특화 JOB-UP 캠프'를 마무리했다 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의 실질적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실전 중심의 캠 프로 진행돼,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자 분석과 취업 전략 수립을 도왔다. 의 95%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 으로 응답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캠프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실 습 △인공지능(AI) 기반 자소서 첨삭 △현직 인사담당자 멘토링 △모의면접 △직무별 특강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

첫째 날에는 채용 트렌드 분석, 성격유 형검사(MBTI)를 활용한 진로 설계, 챗지 피티(ChatGPT)를 활용한 자소서 작성이 이뤄졌다. 또 전문 취업컨설턴트 6명이 1:1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개인별 강점

둘째 날에는 한국전력공사·ECO융합 섬유연구원·농협은행·LG화학·삼양식 지난 4~5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열린 품 등 주요 공기업 및 대기업 인사담당

자가 참여한 채용설명회와 멘토링 세 션이 열렸다.

현장에서는 '기업 담당자에게 직접 조언을 들으니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 '지역에서도 수준 높 은 취업 지원을 받으니 만족스럽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역량을 키우 고 자신감을 얻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하고 꿈을 키워 가는 청년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 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여성 고용 협약 '역대 최대'

올해 20개 기업·기관 추가

정읍시가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성친화 일존기업' 협약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 새일센터)는 11월 초까지 ㈜하림 등 했다. 20개 기업·기관과 추가 협약을 맺으 축, 여성들을 위한 든든한 취업 지원망 을 확충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하림과의 협약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이어진 이번 신

규 협약에는 ㈜케이푸드정읍지점, 우 원푸드농업회사법인㈜ 등 10개 기업 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들은 여 성 인력 고용 확대와 양질의 취업서비 스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정읍새일센터는 이들 협약 기업을 며 올해 총 39개소와 협력관계를 구 대상으로 새일여성인턴십을 우선 연 계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재직자 교육과 취업 연계 서비스 같은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주요 현안 추진상황 점검

#### 39개 현안·18개 미달성 합동평가 지표 종합 관리

군산시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025년 주요 현안 및 합동평가 추진상 황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세 번째로, 연내 가시적 성과 창출과 주요 과제 마무리 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총 39건의 현 안 사업과 10월 말 기준 합동평가 미달 성 18개 지표를 살펴보면서, 핵심 사업 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별 추진현황 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을 견인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 지 산업생태계 육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업 유치·산단 조 이기 위한 전략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성·항만·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산



전지·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생태

김영민 부시장은 "주요 현안과 합동

논의된 주요 현안 사업은 미래 성장 업활성화 과제를 집중 점검했고, 이차 평가 지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행 정 신뢰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올해 계 조성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방향을 구 남은 기간은 물론 내년도 사업까지 흔 체화하는 등 남은 기간 추진 속도를 높 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 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 드림스타트-LH, 주거복지 '협업'

트 프로그램실(4층)에서 LH(한국토지 주택공사) 관계자들과 취약계층 아동 함께 공유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논의했 다고 밝혔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하나로, 주거복지 사업을 소개하고, 아동복지 대상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집수리 지 원 등 다양한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 해 LH와 함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 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드림스타트 담당 및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6일 드림스타 통합사례관리사, LH 관계자들은 실제 아동 가구의 주거 여건과 복지 욕구를 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이번 방문은 LH의 주거복지 홍보 및 "LH의 방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아 동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의 실 질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중개수수료 1.5% 입점 광고비무료운영등 민관협력형 상생 모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 소상공인 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를 촉진하기 위해 ㈜먹깨비와 민관협 력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 롯해 강용구 ㈜먹깨비 부사장, 김제시 소상공인협회장, 김제시 한국외식업중 앙회 부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공배 달앱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하게 된 ㈜먹깨 비의 '먹깨비' 앱은 민관협력형 공공배 달앱 중 가장 낮은 중개수수료인 1.5% 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점비·월 사용 료·광고비가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익일 정산 시스템을 제공해 소 상공인의 현금 흐름 개선에도 큰 도움 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장 대면 결제 기능을 지원해 모바일 결제가 어려운 소비자도 손쉽 게 이용할 수 있어, 전 연령층에 편리한

고향사랑기부자 초청

기념 촬영 등 성과 체감

부안군은 지난 1일 줄포만 노을빛 정원

에서 제2호 '비호텔(Bee Hotel)' 개막식을

이번 행시는 고향시랑기부제 지정기부

시업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의 일

환으로 추진됐으며 고향사랑기부가 어떻

게 실현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

비호텔은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를

단순한 설치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생

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담아

주민과 기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징하는 '흰발농게'를 모티브로 디자인돼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상징성을 함께 반

이번 행사에는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

형 생태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영한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잃은 아생벌들을 위한 인공 서식지다.

징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비쿠폰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배달비 포함 2 만 원 이상 주문 시 1일 1회 5천 원)이 공공배달앱 이용을 촉진함에 따라, 김 제시 공공배달앱의 초기 인지도 제고 와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

시는 오는 11일부터 모바일 김제사랑 질적인 상생 모델"이라며 "지역의 선순 카드 연동 결제를 시행한다.

모바일 김제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이를 공공 배달앱 결제와 연계해 체감 결제 부담

부안군, 제2호 '비호텔' 개막

주세요!'지정기부에 참여한 기부자 중 다

섯 가구를 초청해 본인의 기부가 어떤 공

간으로 실현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체

부안군은 이들에게 '비호텔 분양증서'

진 안내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등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정중한 예우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부자의 이름이

험의 상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제2호 비호텔은 줄포만을 상 를 직접 전달하고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

를 표했다.

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첫 주문 5천 원 할인쿠폰 지급 등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가입 을 적극 유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공배달앱 운 영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실 환 구조를 강화하고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어가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신재효문학상,이강원작가 '따오기의 아침'

동을 펼쳤다.

2020년 '아버지의 첫 노래'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소년의 강', '중정

머리 없는 인간' 등 다양한 작품 활

올해 5회를 맞은 고창 신재효문

학상은 고창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 제작 기반

을 위해 2021년도에 처음 시작됐으

며, 당선작은 내년 2월중 출판사 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당선작

은 고창을 떠난 자들과 고창을 지

킨 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고창적인 이야기

가 작품으로 당선돼 매우 기쁘다"

며, "전 세계에 고창을 알리는 문화

관광자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

/고창=백종규 기자

산북스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내년 2월중 출간 예정

제5회 고창 신재효문학상의 당

심사위원단(이병천·김종광·박 영진·이성아·정지아)은 국내 최고

의 문인들로 꾸려졌으며, 수상작

당선작으로 선정된 '따오기의 아

침'은 전쟁과 질병으로 가족을 잃

고 땅을 파는 건축업자로 살아가

는 주인공과 발굴을 하는 고고학자

아들의 갈등과 이해를 통해 고창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이강원 작가는 고창군 신림면에

서 태어나 원광대학교대학원 문예 혔다.

선작이 이강원 작가의 '따오기의

아침'으로 선정됐다.

의 상금은 5000만원이다.

#### 내달 11일까지 신청

그린 이야기다.

창작학과를 졸업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은 오는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 시스템www.agrix.go.kr)에서 온라인 으로 신청하면 된다.

에서 가장 많은 323명의 청년 후계농 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청년 농업인들 의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 김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모집

시는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 착지원사업 대상자는 오는 12월 11 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달 최대 110만원, 5억원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나 독립경영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 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 년간 독립경영 연차별로 110~90만원 까지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ㆍ시 설 매입과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을 세대당 최대 5억원 한도와 1.5% 저금 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후계농 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 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 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 과에 따라 날라실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최근 3년 전국 발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제35회 동리대상' 김청만 명인 수상

### 국내 판소리 최고권위 "전통예술 뿌리 지키겠다"

대한민국 판소리 최고 권위의 상으로 여겨지는 '제35회 동리대상' 시상식이 6일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성황리 에 열렸다.

올해 동리대상은 판소리 고법 김청만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보유자) 명 인이 수상했다.

수상자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북 산조 다.

공연, 신영희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하 는 전통국악 공연, 지난 9월에 전석 매 진으로 호평을 받은 동리창극단 고창 흥부설전 창극 공연이 열렸다.

김청만 명고는 1946년 목포에서 출 생해 2007년 보관문화훈장 수상, 국립 국음악과 대우교수,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3 시상식은 헌화, 기념식, 시상과 함께 도 판소리 고수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 문 최고권위의 상이다.

김청만 명고는 "소리꾼을 살피고 북 으로 숨결을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고 수다"며 "전국 각지에서 교육과 후학 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써 전통예술의 뿌리를 단단히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새겨진 비호텔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지

속기능한 미래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실석 예우와 감농 있는 시업

한편 부안군은 앞으로도 고향시랑 지

정기부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기부금 환류 모델'을 지

/부안=신상수 기자

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리대상은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 국악원 예술감독, 부산예술대학교 한 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하며, 판소리 사설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 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보유자 키고자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사 로 지정됐고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람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판소리 부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구제역 항체 양성률 확보 '집중'

에 대한 구제역 접종과 항체 양성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초 전남(무안 등) 지역에서 구제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방역망에 구멍 치다.

군은 일단 지난 9월 8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일제접종 기간에 한(육)우와 젖소 2만 7000여 마리를 비롯한 우제 류(소, 돼지, 염소) 6만 8천여 마리에 대한 구제역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임신개체, 2개월령 미만 송 아지는 일제접종 기간에 접종대상에

부안군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군은 11월 10 일부터 3주간 미접종개체에 대한 집 중 접종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구제역 항체가 저조농가 역이 발생한 데 이어 항체 양성률이 와 무작위 농가를 선정해 구제역 항 체가 확인검사를 12월 10일까지 시행 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 해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에 최선 을 다 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구제역을 예방하는 제 일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을 철저 히 하는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예방접 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 인 소독과 축산농가 모임 자제를 부 탁드린다"고 밝혔다.

> >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신청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내 생 진해 왔으며, 올해 국비 1억 6천만 원 태계 우수지역인 만경강 하류, 동진강 을 포함한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하류 지역의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류지역인 8개읍·면이고, 신청기간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신청대상지 률'제16조에 의거 지역의 산림, 하천, 농경지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생태 계 서비스를 보전하고, 이에 기여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 써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

투입해 보리, 밀 경작 농민 중 신청자 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에게 이행 여부 확인 후 경작 면적에

> 사업대상지역은 만경강, 동진강 하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겨울 철 새를 보호하고 풍요로운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보리, 밀 경작 농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김제=온봉기 기자

#### '지역주민과함께하는힐링콘서트' 8일 김제문화예술회관서 펼쳐져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을 통해 세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지역주민 과 함께하는 11월의 힐링 콘서트'가 오는 8 일 오전 11시 2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 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드림필하모닉오케스트 라 35인과 중창단'앙상블 노빌레', 그리고 김제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함께하며 세대와 지역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김제청소년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초 급반 학생들은 귀여운 선율의'작은별'과'할 아버지의 낡은시계'를 협연하며 그동안의 배움을 무대에서 직접 선보인다.

또한 오케스트라 단원인 이채하 학생이 모차르트 피아노'콘체르토 3악장'을, 바이 올린 박다빈 학생이 비발디'콘체르토 F'단 조를 연주해 청소년들의 열정과 성장을 보 여 줄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앙상블 노빌 레'는 감동적인 하모니로'Nella Fantasia'등 을 선사하며 공연의 감동을 더한다.

클래식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적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고, 특히 오케스트라와 합창, 청소년 연주자들의 협연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지역 예술교육의 결실이자 지역사회 문회 예술 활성화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 심원면, 올해 다섯번째 아기탄생 축하선물 전달

고창군 심원면 주민행복센터(면장 방준 형)가 올해 다섯번째 출생이 탄생을 축하하 기 위해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출산 축하선 물을 전달했다.

이번 출생의 주인공은 심원면 하전리에 거주하는 왕용·김하은 부부의 둘째 아기 다.

심원면은 가정의 기쁨과 마을의 경사들 함께 나누고자 출생을 기념하는 축하 플랜 카드를 제작해 마을과 면사무소 게시대에 게첨하고, 면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심원면은 저출생 극복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아기 용품 등 출산 축하선물을 함께 전달했다.

방준형 심원면장은 "올해 심원면에 다섯 번째 출생아가 탄생해 기쁘다"며 "새생명 의 탄생은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지역사 회 모두의 경사인 만큼, 앞으로도 아이 낳 고 기르기 좋은 심원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제10회소상공인의날 기념행사성황지역경제 '새도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5일 김제 낙 원예식장에서 (사)김제시소상공인협회 주관 으로 '제10회 김제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상권 활 성화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그간의 헌신에 감사하고 노고 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협회장 이·취임식이 함께 열 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회복과 회원 간 소통 강화에 앞장서 온 고 영선 회장이 이임하고, 이종섭 신임 회장이 새로운 도약의 첫발을 내디뎠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 인은 김제경제의 든든한 허리이자 지역사 회의 원동력"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묵묵히 일터를 지켜온 여러분의 열정이 김제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었다"고 감사 를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의회, 현장의 목소리로 답 찾는다

#### 농업인단체·주민자치 간담회…지역 현안 논의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5일 부안군 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김형 섭),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명 숙)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 부안군의회는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고말했다.

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꾸 농업인단체의 목소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주민자치위원회 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의 근간인 농업을 지켜내고, 주민자치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부안군의 당면 과 위원회는 지역을 움직이는 풀뿌리 민 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행 정과 의회, 단체 간의 협력 필요성에 뜻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 을 모았다.

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박병래 의장은 "농업인단체는 부안

주주의의 중심"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소리를 꾸준히 듣고 함께 고민하겠다" /부안=신상수 기자

한 사업이다.

시는 매년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

순창군, 2026년 유기농업자재

순창군이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남원시, 200억 투입 '도시 바람길숲' 조성

#### 산림청공모선정요천로일원진행 열섬현상완화·탄소중립실현기대

남원시가 산림청이 추진하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도심으로 유입시켜 대기순환을 원활히 200억 원(국비 100억원 포함)을 투입해 하고, 오염물질과 더운 공기를 외부로 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는 역할을 한다. 요천로 일원 등 55ha 규모로 진행되며,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시 바람길숲'은 도시 외곽 산림에 는 녹색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서 발생하는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배출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

남원시는 2026년에 기본 및 실시설 열섬 취약지역에 도시 바람길숲을 조 계를 완료하고, 이후 3년간 단계적으로

성하여 도시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생활 권 녹지와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

>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 바람길숲 조 성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것"이라며,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남원을 만들어가 겠다"고 밝혔다.

> >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만 원의 행복' 저소득층 재해보험 전액 지원

#### 군-완주우체국 민관협력 복지강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

완주군이 관내 저소득층의 예기치 않 은 재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 회와 손잡고 '만 원의 행복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 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전액 해 소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안 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일 완주군은 군청 전략회의실 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이명자 완주우 체국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업 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 는 이웃이 없도록 관리한다. 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없앴다는 점이다.

입에 필요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예방진화대·감시원 100명 배치

공무원 전문 진화대까지 총력

순창군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

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 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

군은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 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총 100명을 읍·면 전역에 배치해 산불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군청 산림공원

과를 중심으로 소방서, 경찰서, 순창군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

부 24시간 상황근무 체계 운영 ▲산불

주요 추진 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 침이다.

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자 실

배치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 활 동 진화에 나서며, 대형 산불로 확산될

동 강화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 예 경우 헬기 등 광역 진화 자원을 투입해

아울러, 군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수준의 대형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

방 계도 활동 ▲산불 발생 시 초동 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 초동 대응에 나선다.

화체계 가동 등이다.



지난 5일 완주군은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완주군>

순창군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

인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에 기 위해 '공무원 전문 진화대'를 발족했

화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 원으로 구성된 전문 진화대는 산불 발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신고 접수 즉 정리와 후속 조치까지 수행할 수 있도

앞서 순창군은 지난 4월 국가 재난 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우체국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보험 가입 절차와 운영을 전담한다. 완 주군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 대상자 를 발굴하고, 홍보·추천을 통해 소외되

협약으로 완주군 저소득층 주민들은 재해 발생 시 유족 위로금, 입원비, 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험 가 술비 등을 보장받는 공익형 상해보험

순창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갑작스러운 사 고가 또 다른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 록 튼튼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자 완주우체국장과 한명규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도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함 께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블루존 프로젝트' 고령친화도시 시동

#### 주거·의료·돌봄·여가 통합 구축 도와 TF 가동 마스터플랜 착수

가 추진하는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사업(블루존 프로젝트)' 대상지 로 선정돼 고령친화 정주모델 구축을

사업은 주거·의료·돌봄·여가가 통합 된 정주환경을 조성해 고령자의 건강 한 생활을 지원하는 전북도 특화사업

남원시 용정동 일원에 조성될 대상 지는 교통 접근성과 자연환경, 의료 인프라가 우수해 고령친화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고령자복지주택, 의료요양시설, 건강지원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단계 혔다.

국가 공모 연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전북도와 시는 '고령자 건강 을 논의했다.

남원시는 고령자 맞춤형 치유 프로 그램을 도입해 은퇴세대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에게는 건강한 노후 삶의 기반을,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고령친화 정주 모델을 남원에서 실현하겠다"라고 밝 /남원=정하복 기자

다.

순창군 '청년 코칭프로젝트' 취·창업 역량 강화

순창군이 청년들의 취·창업 역 능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 량 강화를 위한 '순창청년 코칭프 다. 김보령 위더스 에듀 대표가 강

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순 바로잡고 활동 중 필요한 스트레

프로그램은 ▲말하기 코칭(스피 은 선택 강좌가 아닌 전체 8회를

'말하기 코칭 스피치 마스터'는 며, 모집이 완료되면 조기 마감될

의를 맡는다.

를 그리는 심리코칭'은 자기 이해

를 바탕으로 진로와 일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

'활동도 건강해야 할 수 있다! 생 활 속 자세 코칭'은 잘못된 자세를

칭을 익히는 특강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최대 15명이며, 참

가비는 3만 원이다. 이번 프로그램

모두 수료해야 하며, 수료 시 참가

신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네이

버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

군 관계자는 "청년들 간의 교류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순창=박지헌 기자

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8일부터 선착순 참가자 모집

스피치·심리·자세 코칭 운영

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코칭프로젝트는 11월 14일

부터 12월 9일까지 청년문화센터

창군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9세

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치 마스터) 4회 ▲심리코칭 3회 ▲

생활 속 자세 코칭 1회 등 3개 분

야로 모든 강좌는 오후 7시부터

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서영 퍼

스트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가 강

사로 나서 자신 있게 소통할 수 있

'나를 알고, 너를 이해하고, 우리

취·창업을 위한 말하기 능력을 키 수 있다.

2~3시간 동안 진행된다.

는 능력을 키워준다.

수 있다.

본격화한다.

### 적으로 도입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

남원시는 올해 8월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마을 조성 협력 TF팀'을 공식 가 동,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향과 조성 모델 설계를 위한 공동 추진체계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도청 영상회 의실에서 킥오프(Kick-off) 회의를 총사업비 2,044억 원이 투입되는 이 개최하고 남원형 고령자 건강 치유마 을 조성 전략과 국가 공모 대응 방향

# 완주군 동상생활문화센터

이번 문화자랑은 센터 수강생들이 1년간 배워온 강좌 활동의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 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강생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풍성한

행사에서는 색소폰, 통기타, 노래교실, 풍 물, 한국무용, 라인댄스 등 7개 정규강좌 수 강생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완주국악단 의 초청공연도 진행됐다.

도예와 캘리그라피 수강생 21명이 참여 해 총 8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으며, '건강 한 계피 화분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동상면 부녀회가 마 련한 먹거리 부스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나 누며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소방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자체 기념행사

#### 유공자 표창·화합의 장 열려 군민 안전 다짐하며 단합 다져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6일 오 에 기여한 인사들을 격려했다. 전 11시 본서 3층 대강당에서 '제63주 년 소방의 날'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 건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준 방대원, 소방발전위원회 위원 등 약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과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했으며, 식전 공연, 유 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자 표창, 오찬, 체육 행사 순으로 진 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 행됐다.

부장관, 소방청장, 도지사, 소방서장 표창을 26명에게 전수 및 수여했으 며, 평소 소방 업무와 지역사회 발전

행사 후에는 기념 케이크 커팅식과 오찬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함께 축 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소방의 날은 화재 예방과 국민 안전 단체줄넘기, 족구, 줄다리기 등 체육 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방공무원과 의 행사가 진행되어 직원 간 단합과 협

이주상 완주소방서장은 "어려운 여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가을 낭만·힐링 '모악산 웰니스 축제' 개막

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기 동심을 다졌다.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특히 유공자 표창에서는 행정안전

겠다"고 말했다.

# 남원시, 귀농귀촌 임시거주로 '안정 정착' 앞당겨

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100명 현장 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출동해 초 록 개인 진화장비를 갖추고 운영되고

#### 정착 초기 주거부담 해소 입주민 정착률 60% 이상 성과

망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총 22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임시 난다. 거주시설' 운영에 적극 나섰다. 이는 귀 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임시거주시설은 지역 생활을 체험하 화하고, 정착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어 남원시는 연평균 1,000명 이상 꾸준 한 귀농귀촌인 유입을 보이고 있다. 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희 제로 임시거주시설 입주민의 남원 농

현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직접 운 농귀촌인의 초기 주거 부담을 해소하 영 시설 14가구와 각 마을회에서 운영 고, 남원에서의 새 삶을 안정적으로 시 하는 시설 8가구를 포함, 총 22가구의 임시거주시설을 운영 중이다.

고 자신에게 맞는 정착 지역을 탐색할 취 △게스트하우스 2기구 포함 심도 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 는 귀농귀촌 교육을 제공하는 '주생체 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문제를 완 재형 가족실습농장(총 12가구)' △수지 면(3가구)·금지면(2가구)·주천면(2가 귀농귀촌 플랫폼(그린대로)를 통해 확 구)·보절면(1가구) 등 각 마을회에서 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 운영하는 임시 거처 '귀농인의 집 (총 8 가구)' △주천면과 송동면 지역에 연말 부터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운 영하는 '남원에서 살아볼家 (총 2가구)' 촌지역 정착률은 60% 이상으로 나타 세 가지 유형의 임시거주시설을 제공 중이다.

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명의 공무

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잔불

최영일 순창군수는 "산불방지대책본

부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

/순창=박지헌 기자

입주자 선정은 신청서를 토대로 그린 대로 귀농귀촌 홈페이지 및 남원누리 시민 가입 여부, 신청 연령, 귀농 교육 수료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진다. 남원 시는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필요에 맞 시농업기술센터 자체 운영 시설(귀농 인의 집 제외)의 입주 기간은 최대 1년 으로, 임대료 및 시설 사진 등 상세 정 보는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남원=정하복 기자

## 8~9일 도립미술관 야외광장서

# '웰빙·건강·행복' 체험 다채

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 일원에서 웰 모악산 웰니스 축제'를 개최한다.

는, 전국 100대 명산 모악산을 배경으 진행된다. 아울러 극단 창연이 '흔들 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리지 마, 귀동아' 아동극을 '바른 먹거 먹거리 행사 등이 마련돼 있어 가족 리'를 주제로 선보인다. 단위 관광객은 물론 가을 나들이객들 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막식에서는 가수 '강허달림' 그리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가을의

낭만을 더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 열리는 가을빛 Music Party에서는 'ZIP4(집사)'와 '오지은'이 감미로운 완주군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전 무대로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간다.

이외에도 지역주민 공연과 다양한 빙, 건강, 행복을 주제로 '제3회 완주 이벤트가 마련돼 있으며, '헬스 릴레 이 게임', '노르딕 워킹 체험', '건강 체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 험'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유희태 완주군수는 "안전하고 즐거 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첫째 날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개 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완주=김명곤기자

난 5일 살기 좋은 고을 가꾸기 노인일자리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은 4회

남원 금지면, 노인일자리 어르신

금지면행정복지센터(면장 양인환)는 지

야외활동 진드기 안전교육

차이며 일자리 참여 시 가을철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안전사고 및 각종 사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중 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지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일자 리 사업으로 살기 좋은 고을 가꾸기를 시행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0명의 일자리 참 여자가 마을을 가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 진행 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 신들에게 다과를 제공하고 불편사항 및 애 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노인일자리 물품(썬크림)도 전달했다.

양인환 금지면장은 "우리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어른신들께 감 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 각하시어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 고 토양의 건강성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으 로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토

지원사업 신청 접수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유기·무농약 인증 농지 및 일반 농산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구입비는 인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

유기인증 농지에는 ha당 최대 200만 원, 무농약 인증 농지에는 ha당 최대 150만 원, 관행 농업 농지에는 ha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업과 또는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고,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 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인 가운데에서도 지난해보다 7ha 증가한 1,082ha를 기록하 며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이러한 흐름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창=박지헌 기자



# '문화자랑' 성과발표회

완주군 동상생활문화센터(센터장 유경 태)가 지난 5일 동상면민운동장 일원에서 '동상! 상상 그 이상' 문화자랑 행사를 개최

생활문화축제의 장이 되었다.

#### 무주군, '펫티켓 캠페인' 진행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무주군은 6일 무주읍 반딧불시장에서 관 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동참 한 가운데 '펫 티켓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에 성숙한 반려동 물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오는 30 일까지 6개 읍면 산책로와 시장, 주택 밀집 지역 등지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반려인 과 비반려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상호존중 예절을 비롯해 △동물등록·안전조치 이행 여부,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공유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려인들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 식표 착용해야 하며 △2개월령 이상의 개 를 키우는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을 해야 한다.

또한 △타인과 일정 거리 유지, △반려동 물 배설물 수거,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장 이용하기,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장은 "현행법상 목줄·가슴줄 미착용과 동 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 원, 인식표 미착 용 및 배설물 미수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반려동물 준수사항은 단순 한 의무를 넘어,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안 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만 큼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섬진강권역 관광 협약 체결

#### 임실·진안·순창 3개 군 상생관광 협력추진

임실군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 순창군과 손을 맞잡았다.

군은 지난 4일, 국립진안고원산림치 유원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섬진강 권역 관광 활성화 포럼'에서 심 민 임실 군수를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최영 일 순창군수, 김현환 前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등 약8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권역 관광 활 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섬진강 권역 내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본격 구 축하고, 지역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 및 상생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협약에 따라 3개 군은 △관광자원 공 동 발굴 및 기획 컨텐츠 개발 △광역단 위 관광인프라 개선 △홍보·마케팅 협 력 등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기반 마련 과 더불어 공모사업 공동대응, '섬진강 권 관광협의체(가칭)' 구성 등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임실군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 순창군과 손을 맞잡 았다

특히,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 시 공 동 대응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섬진 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레저·치유· 문화 체험자원을 연계한 통합 관광 루 트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3개 군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는 종합 관 광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실군은 섬진강 수계 경관과 힐링· 체험형 관광지 강점을 기반으로 권역 내 혁심 연결축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 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옥정호 붕 어섬 생태공원, 옥정호 수변 관광지, 임 다. 실치즈테마파크 등 군 대표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역 관광 수요확 대와 지역 현안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사계절 수변경관과 생태체험이 가능 한 자연힐링지로 옥정호 붕어섬생태공 원을, 데크 및 산책로 확장, 전망 명소 조성을 통한 옥정호 수변 관광지 개발 사업과 가족체험 관광 중심지로 방문 객이 급증하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 등을 연계한 관광전략을 본격 추진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전망이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제23기 노인대학 졸업생 배출

송택연총학생회장등표창

제23기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 회 부설 노인대학 졸업식이 6일 무 주군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 장, 윤정훈 도의원을 등 주요 인사 를 비롯한 졸업생 등 150여 명이 참 다. 석했다.

장(80세, 무주읍)이 학생 대표로 졸 업장을 받았으며 성실하게 학업을 이수하고 노인대학 발전과 운영에 기여해 표창장도 받았다. 또한 최창 했다. 호 학생(73세, 무주읍)과 구정숙 학

생(86세, 무풍면), 박래명 학생(86 세, 설천면), 김금례 학생(74세, 안 성면)도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광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장 은 "그간 노인대학에서 얻은 지식 노인강령 낭독, 기념식 등의 순 과 경험을 지역 발전을 위해, 또 세 대 간 교류와 화합을 위해 활용해 달라"며 "앞으로 지혜 나눔 멘토로 서의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밝혔

황인홍 군수는 "100세 시대를 살 이 자리에서는 송택연 총학생회 아가는 어르신들께 무주군 노인대 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 다"라며 "이를 위해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발효식품 교육 추진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교육 수강 희망

자 24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실용 요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2일 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되며, 지역 농산물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 고 발효식품의 특성 이해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창의력을 증진하는 실용적인 조리 실 습 교육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된장, 고추장, 간장, 치즈, 식초, 막걸리 에 대한 발효식품 이론 수업 △된장소스 두부 새우찜 △약고추장 △발효간장 육포 △고구마 치즈 샐러드 등 13종의 실습 교 육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음식교육연구 소의 김상경 소장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독감 유행 확산에 따른 예방접종 당부

진안군은 예년보다 이르게 확산 중인 독 감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예방수 칙 준수와 독감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고위험군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어린이 와 임신부는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어르신은 보건소·보건지소·위탁의료기관 모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소아·청소년 층을 중심으로 독감 의사환자 발생이 급증 하고 있어, 어린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특 히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독감과 함께 코로 나19 예방접종도 실시 중으로,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는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독감과 코로나 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진안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 숲이 들려주는 치유 새 이정표

진안군 해발 650m 고원지대에 위치 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6일 개 어갔다.

이 날 개원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 사,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송 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전춘성 진 안군수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 200여 명 이 참석해 전북 진안에서의 새로운 출 발을 함께 축하했다.

지역예술단 공연과 숲속문화공연, 환 담회, 제막식, 기념식수 등 다채로운 프 장을 열었다.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은 덕태산 과 선각산 자락 해발 650m 백운동 계 원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 곡 일원 617ha에 국비 729억 원과 지방 비 182억 원 등 총911억 원이 투입돼 2021년~2024년까지 조성됐다.

> 시설은 한 번에 최대 2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동 74실, 총연장 11km의 치 유숲길 6개소, 산림치유센터, 구내식당 등 다양한 산림치유 기반시설을 갖추 고 있다.

단순한 시설 개원이 아니라, 국가 산림

로그램을 통해 '숲 속 힐링'의 새로운 복지정책의 남부권 균형의 축을 완성 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경북 영주에 이어 두번째로 조성된 국가 산림치유원으로 그동안 동부권 (영주·예천) 중심으로 구축되어온 산림 치유 네트워크가 이번 개원을 통해 서 남권으로 확장되며 전국권 치유 인프 라의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은 앞으로 '국립 치유원 3대 축(영주-제주-진안)'의 서남권 거점으로서 역할을 맡아, 지역 사회와 연계된 산림치유산업 육성, 숲 이번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의 조성은 속 힐링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군의회, 제30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 돌입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6일부터 을 기울일 계획이다. 내달 19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제 30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미옥 의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책 개선 제안"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날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2 월 11일까지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각 종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장 손동규)는 11월 10일부터 18일까 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개선 방향과 합리적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김민규)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 유공자 표창을 전수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군민의 눈높이 맞는 효율적 예산편성에 심혈

동창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 례회는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회기"라 며 "정례회를 통해 올 한 해의 성과와 아쉬움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견제와 협력을 이어가겠 다"고 밝혔다.

진안군의회는 이날 개회에 앞서 김 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 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진안군파크 골프협회 김창주 회장에게 전북특별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대신해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장수몰 장수가꿈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

#### 홍보대사 최재명 가수 직접 녹음

장수군은 지난해 장수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최재명이 군 홍보송인 '장 운 장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장수좋다' 홍보송은 장수군 농 지 버전으로 구성됐다. 특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과 들이자 군 홍보대사인 최재명 가수가 하며 앞으로도 최재명 홍보대사와 함께

사랑을 담았다.

홍보 영상은 장수군 V-비즈링(컬러 링) 영상, 군 공식 SNS·유튜브 채널에 수좋다'를 직접 불러 군정 홍보의 새로 게재되는 메이킹 영상, 지역 방송 및 전

군은 이번 홍보송 제작으로 '장수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을 널 과 '장수가꿈'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 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으며 장수의 아 론 군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직접 녹음과 영상 촬영에 참여해 고향 축제·관광지·특산물 홍보 활동을 온·오 프라인으로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장수의 아들이자 군 홍보대사인 최재명 가수와 함께한 이번 음원 제작이 장수군 농특산물 브 광판에 송출되는 광고 영상 등 총 3가 랜드를 더욱 친근하게 알리는 좋은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 202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 사를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확인할 계획이다. 밝혔다.

복합용도 주택 등 지역 내 약 8.093호 원의 검증절차를 거쳐 3월에 주택소 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읍·면 담당 자와 9명의 조사요원이 현장을 직접 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방문해 건물 구조, 지붕형태, 용도 등 통해 2026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 주택의 개별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축, 증 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은 모두 조사대상 이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개별주택가격 이다.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주택

장수군은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 의 이용상황, 건물 구조, 면적, 증·개축 여부 등을 현지 출장을 통해 세밀하게

군은 조사가 완료되면 2026년 1월 이번 조사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까지 가격산정을 마친 후 한국부동산 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과 장 격이 결정·공시된다.

> 장수군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 격 산정을 통해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 행정 신뢰도를 높여 공 평 과세를 실현하는 데에 주력할 방침

> >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지속가능한농업실현의지다져 군수표창11명등시상

무주군은 6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생활개선무주군 연합회(회장 윤정순)에서 주관한 가운 데 적상면 생활개선회 "단풍 난타팀" 공연, 캘리그라피(캘리그라퍼 이덕희 작가, 박지현 배우) 퍼포먼스 등 식전 행사와 시상식, 다 함께 어울 한마당 순 원, 무주군농민회 이정구 회원, 무주군 으로 진행됐다.

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 각 기관·사회단체장들 이 참석했으며 유종석 한국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 회장, 이종인 한국4-H무 영인무주군연합회 회장, 최미선 한국여 성농업인무주군연합회 회장, 최연수 무 주군농민회 회장, 이정훈 무주군4-H연 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6개 읍면 농협 이재식 씨, 구천동농협 전장미 씨, 농업인 7백여 명이 함께 했다.

군연합회 윤종덕 회원, 한국생활개선무 주군연합회 김정경 회원, 한국후계농업 경영인무주군연합회 전현석 회원, 한 국4-H무주군본부 장민정 회원, 한국여 성농업경영인무주군연합회 신홍자 회 상했다. 4-H연합회 윤종오 회원, 그리고 우수 황인홍 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 농업인 설천면 박삼용 씨, 안성면 강정 기 씨, 부남면 김옥춘 씨가 군수 표창을 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수상했다.

학재 기술기획팀장은 농업인 지도 및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주군본부 회장, 박천우 한국후계농업경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

여한 공로로 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한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전성균 씨와 무주군산림조합 이승연 씨, 무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박범 이 자리에서는 한국농촌지도자 무주 철 주무관이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 회가 주는 주관단체상을 받았다.

> 무주군의회 의장상은 한국생활개선 무주군연합회 윤정순 씨, 무주농협 정 필갑 씨, 무주군농민회 하임수 씨가 수

> 황인홍 무주군수는 "여러분이 바로 무주농업의 근간"이라며 "자긍심을 가 지고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을 실현하

이어 "살맛 나는 농촌, 할 맛 나는 농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이 업을 위해 행정에서도 부단히 노력해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추진

임실군이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 선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 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중소기 차비(월세) 지원도 새롭게 추진할 계 업 기반 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등 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확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보와 근로자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있다.

을 선정해 바닥 도장공사, 휴게실 및 식당 개보수 등에 54백만원을 지원했 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제조시설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군은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심 민 군수는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4개 중소기업 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노후시설과 열 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 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들, 직접 재배한 배추 무 기부

2025년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들이 6일 무주군자원봉사센터에 김장용 배추 150포기와 무 100개를 기부하며 훈훈함을 전

교육생들은 "지난 3월 무주군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에 입소한 뒤로 직접 재배한 무와 배 추를 이웃들과 나누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귀농의 꿈을 품고 정성으로 키운 만큼 이웃들 에게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 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체 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운영 중으로, 거주시설과 개인 텃밭, 공동경작지 및 학습실을 갖춘 게스 트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실습 및 교육 환경 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참여한 교육생들은 총 8명으로 3월부터 9개월간 토마토 재배시설과 표고버섯 재배시 설, 공동경작지에서의 밭작물 재배 실습, 선도 농가 방문, 토지 관련 법률교육 등 실무 중심의 귀농·귀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백산농원, 남원시 장애인단체에 포도 100박스 기탁

남원 금지면 서매리 소재 백산농원(농장주 문윤기)에서 남원시 장애인단체 7개소를 대상 으로 6일 포도 100박스(환가액 150만원)를 기 탁했다.

농장주 문윤기 씨는 불편한 몸으로 농사를 짓던 중 자신과 같이 어려운 주민과 함께 소통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장애인단체가 입주 해 있는 남원시 장애인어울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손수 농사지은 포도를 기탁했다.

꿈드래장애인협회 임광호 회장은 "농사일에 바쁘신데도 직접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기탁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기탁받은 포도는 각 장애인단체에 고루 분배하여 관내 생활이 어 려운 장애인에게 전달하겠으며, 장애인단체도 장학금 수여, 연탄 및 난방유, 후원물품 등의 나 눔을 지속 실천하여 사회단체의 의무를 다하 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한전고창지사,저소득층에 전기압력밥솥 10대 전달

#### 이웃사랑, 실천으로

6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지사장 정연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고효율 전기압력밥솥 10대 를 기탁받아 관내 저소득층 가정 에 전달했다.

높은 가전제품(전기압력밥솥)을 발굴·연계하여 함께 추진한 협력

나눔 활동이다. 두 기관은 겨울철 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의 전기요 고창군 고창읍(읍장 이길수)이 금 부담을 덜고, 따뜻한 지역사회 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전달된 전기밥솥은 관내 홀몸어 르신, 장애인가정, 경제적으로 어 려움을 겪는 가정 등 생활여건이 취약한 세대에 우선 배부됐다. 고 한전 고창지사가 에너지 효율이 창읍과 한전 고창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과 복지 향상을 위 기탁하고, 고창읍이 대상 가정을 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 제5회 한마음대회 개최

#### 5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개최 정재철산악회장등표창수상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회 장 김옥봉) 주관으로 제5회 바르게 살기운동 한마음대회가 지난 5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 및 성과보고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본행 사와 부대행사로 화합 한마당의 자 리가 열렸다.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 옥 진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전북 특별자치도 전용태 의원, 바르게살 기운동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이종 서 회장 등 150여 명의 회원이 함께 협의회장 표창은 신재근 이사, 진안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한마음 대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 회원들을 위로하고 격 려하는 행사이다.

수여식에서는 협의회 발전에 공 을 세운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 다. 행정안전부 표창은 정재철 산악 회장이 수상하고, 진안군수 표창은 박희규 정천면위원회 사무장이 수 상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장 금장은 전춘성 군수, 허창석 상전면 위원장이 수상했으며 중앙회장 표 창은 김남규 이사, 전북특별자치도



군협의회 공로패는 김재현 백운면 상했다. 위원장, 박윤삼 부귀면 위원장이 수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읍지사협, 첫돌 맞이 가정에 축하 선물 전달

의체(공동위원장 차주영·민간위 원장 김점옥)는 관내 첫돌을 맞은 가정에 20만 원 상당의 선물과 축 아기용품과 축하카드를 전달하며, 하금을 전달하며 아이의 첫 생일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다.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 로,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첫돌 을 기념하며 출산·양육 친화적 분 을 만들어가고 있다. 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시대에

을 함께 축하했다고 6일 밝혔다.

장수군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 대응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 프로 젝트다.

> 협의체는 첫돌을 맞은 가정에 주민이 함께 아이의 성장을 축하 하는 공동체 돌봄의 의미를 더했

이를 통해 부모들이 지역의 관 진 중인 '첫돌 축하사업'의 일환으 심과 응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읍'

/장수=최진수 기자



#### 신명환유비크리에이티브대표,부안에 300만원기탁

#### 고향에 전한 따뜻한 마음

매니지먼트 기업 유비크리에이티 브와 디자인 전문업체 공감디자인 을 운영하고 있는 신명환 대표가 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개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지역에서 사업을 전했다.

운영해온 신명환 대표가 지역사회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부안군은 최근 미디어 콘텐츠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상호기부를 통해 주민 체 감형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 대표는 "평소 지역의 사회적 부안군에 300만원의 고향사랑기 가치와 기여에 대해 고민해왔는 데,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실천의 신명환 대표는 콘텐츠 제작과 좋은 통로가 되어주었다"며 "이번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획사업을 기부가 부안군의 가치 있는 사업 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부안=신상수 기자



#### 완주시니어클럽, 소리공원에 밀원식물 식재

완주시니어클럽(관장 김대권)이 완주군, 한 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 사 전북지역본부와 협력해 최근 노인공익활 동사업 '꽃마을사업단' 참여 어르신들과 함께 완주 소리공원(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48)에 밀원식물을 심었다.

어르신들이 심은 밀원식물은 꿀벌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아스타, 독일국화, 용담, 초설 마삭줄 등이다.

이 곳은 지역주민들이 꽃을 감상하는 힐링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어린이와 주민을 위 한 생태학습장으로 관리·운영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 군산 조촌동지사협, 저소득 고3 수험생에 '수능 응원 꾸러미' 전달

군산시 조촌동 조경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 의체(공동위원장 이도영, 황순정)는 6일, 관내 저소득 가정의 고3 수험생 12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담은 '수능 응원 꾸러미'를 전

지역 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 는 나눔 활동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이번 응 원꾸러미는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마 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 련됐다.

꾸러미에는 텀블러, 무릎담요, 종합비타민 수능 전자시계 등 1인당 14만 원 상당의 물품 이 담겼다.

꾸러미를 받은 한 수험생은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담긴 꾸러미를 받아 감동이었다"라며, "비타민, 초콜릿을 먹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군산=지송길 기자

신랑 : 안동언 전금수의 아들 종혁 군 신부: 전용배 김화선의 딸 명현 양 일시 : 11월 8일(토) 오후 4시 장소: 군산 스테이 호텔 브리앙뜨홀 연락처: 010 2636 0038 (안동언)

입양 하세요 U기말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당신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一事一言〉



#### 초고령사회 전북, 지역이 돌보는 돌봄체계로 가자

김관춘 논설위원

"돌봄은 제도보다 공동체의 마 음에서 출발한다"

이 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 제, '노후의 품격 있는 삶'을 풀어 가는 핵심 열쇠를 제시한다. 전 북자치도가 내년부터 전 시・군에 걸쳐 본격 추진하는 통합돌봄체 계 구축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시대적 대응이다. 돌봄은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 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의 과제가 되었다.

전북의 고령화율은 지난 9월 기 준, 26.3%로 전국 평균(20.9%)을 크게 상회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명 중 1명을 넘어선 초 고령사회다.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의료비 부담, 요양시설 의 존,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등 복 합적 문제가 이미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복지・보건 전달체계만으 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 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의료, 요 양,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연 계해 지역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통 합돌봄체계'는 시대적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미 14개 시·군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가동했다. 2023년 전 주시 1개소에서 출발한 시범사업 은 올해 2개소, 내년 9월에는 도 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며 사실상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의 전면 구축 단계로 진입한다.

현재 전주시는 예산지원형, 군 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 등 13개 시군은 기술지원형으로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연 계체계를 정비 중이다. 시군별로 전담 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을 병 행하며 제도 기반을 다지고 있다 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로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은 이미 조례 제정을 마쳤고, 올해 안에 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 차원에서도 지난 10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 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틀이 완비됐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까 지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전 시군 에 설치하고, 도 본청 내에도 전 담 T/F팀을 신설해 각 시군의 추 진을 총괄·지원할 계획이다. 나 아가 사회서비스원, 의료·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하 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 의체'를 구성해 행정과 현장의 간 극을 좁히고 협업 체계를 강화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의 현장성'과 '도민 체감도'다. 아무 리 훌륭한 제도도 현장에서 피부 로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전북도는 이미 국비 57억 원을 포함한 1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전담인력 인건비, 연계체 계 운영비,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등 실질적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등 5 개 시군에서는 22개 유형의 다양 한 돌봄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독 거노인 방문건강관리, 재가요양 연계, 주거환경 개선, 이동지원 등 구체적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분명 하다.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 고 자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돕는 것, 즉 '지역사회 기반 돌봄(Community Care)'의 정착 이다. 요양시설로의 이주나 가족 의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 익숙한 지역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삶을 이 어가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물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첫째, 전문 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교 육이 중요하다. 돌봄 현장은 행정 과 달리 인간의 세심한 관계와 신 뢰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현장 인 력의 역량이 곧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 전북도가 단계별 교육 과 워크숍을 병행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지만, 향후 도 단위의 통합 인력풀 관리 시스템과 직무 전문 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

둘째, 지역 간 격차 해소도 핵 심이다. 전주는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나, 농촌 지역은 인력 과 시설, 이동 접근성에서 큰 차 이를 보인다. 도는 시범사업 단계 에서부터 이러한 지역 간 편차를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돌봄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복지 인

프라이다.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방 비, 민간 협력, 사회적 기업 모델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전략이 병행 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넷째, 주민의 참여와 신뢰 구축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돌봄 은 '행정의 효율화'가 아니라 '삶 의 방식'에 대한 전환을 의미한 다. 주민 스스로 돌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기반 프로그램, 지원봉사 네트워크, 돌 봄협동조합 등 민관 협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전북은 이미 농촌형・도시형이 공존하는 다양성을 갖춘 지역이 다. 이런 특성은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통합돌봄 모델 실 험지로서의 장점이 된다. 전북이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사 업을 넘어 전국 돌봄정책의 표준 이 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도민의 삶터에서, 익숙한 마을에 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사 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 습이며, 전북형 통합돌봄이 지향 해야 할 방향이다. 전북자치도의 이번 선제적 대응이 노년의 불안 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

### 수출기업 지키는 전북형 통상종합대책 환영한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 강·알루미늄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직격탄을 맞 고 있다. 세계 교역 질서가 보호무역주 의로 재편되는 가운데 전북의 중소 수출 기업들 역시 수출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놓여 있 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외 환 경 속에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 통상 대 응 체계를 가동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

전북도는 통상정책 대응반을 꾸려 맞 춤형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핵심은 관세 대응과 함께 자금, 판로, 컨설팅, 인 증 지원 등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다 층적 지원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금융 안전망을 강화한 점 이 눈에 띈다.

도는 수출기업 특별자금 100억 원을 신설하고 거치기간 연장 600억 원, 긴급 대환자금 200억 원 등 총 900억 원 규모 의 정책 자금을 마련했다. 갑작스런 관 세 인상과 수출 피해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 초점을 맞춘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전북도는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새 로 조성해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 하고 있다. 오는 12~13일 열리는 '2025 JB-FAIR'에는 120여 개 기업과 80여 명 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새로운 거래선 을 모색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기업 맞춤형 사 후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도는 기업과 통상 전문가를 1:1로 매칭 해 실시간 컨설팅을 제공하고 메일링 서

비스와 설명회를 통해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한 결과다. 도는 지난 8월 도내 1,80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그 결과, 수출바우처·보험료 등 수요 맞춤형 지원(24%)과 해외시장 개 척(2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 에 따라 도는 내년도 수출 지원정책을 기업 수요 중심으로 설계, 바우처와 해 외 전시회 참가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전북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대기 업 의존도가 낮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이 높다. 따라서 통상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늦게 회복되는 구조 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지역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단기 대응 을 넘어 중장기 수출 생태계의 체질 개 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 화도 필수적이다. 전북도의 정책금융 확 대와 컨설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과 긴밀히 연 계해 수출보험 확대, 통상 분쟁 대응 지 원,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병행 해야 한다.

글로벌 통상환경은 더 이상 과거의 규 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 패권, 기 후 변화,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변수들 이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런 시대 일수록 지역이 중심이 되어 민첩하게 대 응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제 전북의 통상정책은 '방어'에서 '공세'로 나아가 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 전북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 그 출발점이 바 로 지금이다.

#### - | 독자광장|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제언



최근 운전 자가 주차장 에서 기둥을 이른다. 받은 뒤 30 사고가 발생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운전자의 나이는 96세로, 이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규 개정 많았다.

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 의 양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교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다고 분석했다. 3년으로 단축됐고, 교통안전교육 도 2시간 의무 이수해야 하며, 치 형 (2016)의 연구 결과 좌측으로 매 검사를 받도록 하여 적성 여부 의 차로변경과 중앙선 침범에 따 를 판단 받도록 하고 있다.

세나 65세로 확대하고 있는 추 자는 33,190,565명(2024년 기준) 이며, 이중 65세이상 고령자는

문

화

재

열

전

지하지만, 교통사고는 일반인에 있는건 아니며, 상당수가 영업용 비해 1.4배, 사망자 수는 2.45배에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높 대 행인을 치 은 건 신체적 노화와 관련이 깊다 어 숨지게 한 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교통안전 연구원의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 요 사고원인 분석연구'에 따르면 만 65세이상의 운전자는 노화에 의해 가용시각장의 범위가 축소 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돼 측후방에서 출현하는 장애물 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며, 정보처 2019년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 리 기능의 약화로 인해 처리정보 차로에서 특히 사고 가능성이 높

또한 '자동차 인명사고 유 른 정면충돌, 교차로에서 좌회전 요즘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고 또는 우회전 이후 반대 방향 차와 령 운전자 자진반납 연령을 70 의 정면충돌 등이 자주 일어나는 통계인데 고령 운전자는 운전미 세이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 숙보다 공간 감각 인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모든 어르신들이 운전하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생계와 직결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어르신 운전자에 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한 배려와 양보문화 확산 캠페 인을 펼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재교부 신 청 시 지역경찰 활동 및 언론보 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고예 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 령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과 무관 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동수단 필요성으로 인해 고령 며 그로 인해 반납의 필요성을 대

부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타나 읍면동사무소 에서 면허증 인센티브 신청서 작 성해 자진 반납시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20만원 상당의 지 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교통 비를 지원하고 지역시설 이용 및 안경, 보청기 등 구입 시 할인혜 다. 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은 3,682,632명으로 약 11.1%를 차 있어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에 대

한 대안으로 연령, 특정 질환 등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을 구 체적으로 정해 2024년부터 도입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 자들은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으며, 긴급 제동장치 나 차로이탈 방지장치 등 운전 보 방 활동과 병행해 자진반납에 대 조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도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면허갱신 시 운전에 필요한 인지 능력 등 신체 건강에 대해 꼼꼼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 게 점검해 의사의 진단서를 필수 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갱 신 기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 사회와 제도가 어르신들의 운 전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생계와 인권 등 또다른 문제에 봉착될 수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배려와 양 보, 여기에 국가의 제도가 적절히 맞물린다면 고령운전자 사고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

> >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장 경감 전근수



#### 가을 텃밭 / 차옥혜

가뭄, 장마, 폭풍 이기고 검은깨 추수를 마치자 벌어지기 시작하는 호두 백 년생 늙은 감나무에 꽃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감 뚝뚝 떨어져 수북이 쌓이는 은행 알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는 고구마 무청을 흔들며 솟아오르는 김장 무

여무는 들깨, 살찐 당근 반짝이는 대추, 방울토마토 케일, 서리태, 파, 쪽파, 고추 종일 종종거리다 문득 바라본 가을 텃밭은 아 보석이네

봄여름 숨찬 노동을 뛰어넘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 설레고 벅찬 추수의 기쁨 출렁이는 가을 텃밭은

축복이네 행복이네

시인 약력: 1945년 전주 출생. 경희대 영문학과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 업했다. 1984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경희문학상과 경기펜문학대상 을 수상했다. 시집 '깊고 먼 그 이름' '비로 오는 그 사람' '발아래 있는 하늘' '흙바람 속으로' '아름다운 독' '위험한 향나무를 버릴 수 없다' '허공에서 싹 트다' '식물 글자로 시를 쓴다' '날 마다 되돌아가고 있는 고향은' 등이 있고 시선집 '연기 오르는 마을에서' '햇빛의 몸을 보았 다' '그 흔들림 속에 가득한 하늘' 등이 있다.



2011년 10월01일 회刑/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대표전화 282-9601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인후지사 010-8640-6855 팔복지사 010-3015-4791

송천지사- 010-5242-3694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부안지국 010-7247-3947 고창지국 010-2258-3734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骨两難大報 死 合世 北白 時 與 丘 歸世五大教事體報

대각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전적류, 목판본

-지정일 - 2020년 11월 6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678-238



### 채준희 나<del>눔농</del>장대표, 군산 청년<mark>농</mark>이 일구는 친환경 농업의 새 물결

전북 군산시의 한 온실. 1,800평 규모의 토마토 식 수경재배의 핵심이었다. 하우스에서 채준희 나움농장 대표는 아침 일찍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화면에는 급액량, 배지 수분 함량, 배액 EC 수치가 실시간으로 흐른다. 이 어내는 과학이 되었다.

서" 채 대표의 말에는 아직도 그때의 막막함이 묻 스템은 가동을 멈춰야 했다. 어난다. 8월에 심은 촉성재배 토마토 묘가 하나둘 차 건지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폐기해야 했던 순간 시 시작하려고요" 이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 배움의 물줄기가 희망을 싹 틔우다

이었다. 주 1회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가는 재배 만 늘어나는 시기였다. 청년농에게는 체력과 자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다. 작물의 생육 단계별 양 본, 그리고 경영상태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분 관리, 환경 제어 시스템 운용,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함께 전 사람,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자원 했다.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관리하자, 이때는 영양생장을 억제하고 생식생장으로 전환해야 한 안 좋으시니까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더라고요"

체득하고 있다.

재배 시스템이 설치된 것은 작년이었다. 배액여과 하지만, 때로는 신기술 도입에 보수적이다. 농업 분을 보정해 다시 작물에 공급하는 기술이다. 화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학비료 사용량을 30% 줄이고, 농업용수를 절약하 며, 무엇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양액을 6대 4, 7대 3으로 섞어서 쓰니까 새로 추가 투자 자금을 상환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 하는 비료량이 확 줄었어요"

월 1~2회 업체가 방문해 배액의 EC와 pH, 주요 는 계획이다. 양분 농도를 분석하고 처방을 내린다. 한 번에 8 농업인이 아닌 농업 경영인으로, 현장에만 매달 그리고 과실이 커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계절이 만 원이 드는 검사 비용도 지원사업을 통해 해결 리지 않고 전체를 조망하며 관리하는 사람이 되 순환하듯 작물도 순환한다. 그리고 이제 양액도 갈 내일의 농업을 기대해본다. 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양액 관리가 순환 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GAP 인증과 지역 농 순환한다.

#### 자연은 예측이 어렵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장맛비가 쏟아졌다. 온실 제 4년차에 접어든 청년농에게 농사는 숫자로 읽 한 동이 물에 잠겼다. 연동온실 기둥 높이까지 차 오른 물은 배지를 적시고, 뿌리를 질식시켰다. 다 "첫해엔 정말… 다 엎었어요. 바이러스가 돌아 행히 물이 일찍 빠져 작물은 살았지만, 순환식 시

채 대표는 "침수 후에 필터나 배관에 문제가 있 시들어가던 그 겨울. 수확은 커녕 투입한 자본조 을까 봐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점검받고 제대로 다

기후위기는 이제 농업 현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 흐린 날이 계속되면 광합성이 떨어지고, 작물은 약해진다. 생육이 부진한 상태에서 기온이 농업대학 컨설팅 프로그램과의 만남이 전환점 떨어지면 난방비는 치솟는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

"처음엔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했는데, 허리가

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작물을 읽는 눈이 생기 인력 문제는 농업의 영원한 숙제다. 채 대표는 3 년 전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작물의 부하 상태를 보고 착과량을 조절하고, 있다. 다행히 다른 농장에서 토마토 재배 경험이 일장과 온도를 고려해 생명과 대화하는 기술을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었다. 한국말도 제법 유창 하고, 단순 작업은 물론 세심한 관리까지 함께 해 낼 수 있는 동료들이다.

순환식 재배, 버려지던 것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다 청년 농으로서 느끼는 외로움도 있다. 같은 고민 1,000평 규모의 연동온실 한 동에 순환식 양액 을 나눌 또래가 없다. 선배 농업인들의 조언은 귀

#### 지속가능성, 청년이 그리는 농업의 미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확실히 비료값이 줄더라고요. 원액하고 재활용 목표예요" 채 대표의 말에는 조급함이 없다. 시설 들고, 그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겠다





산물 인증을 받아 학교급식에 2~3년간 납품하고 살균장치를 통해 버려지던 폐양액을 정화하고, 양 외 분야 친구들과는 일상의 결이 다르다. 그래도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주말 중심으로 물량을 로 꾸준히 신뢰를 쌓는 전략이다.

> "포장해서 내고, 안 팔리면 회수하고… 그런 게 만큼만,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내요"

#### 순환하는 물처럼, 지속되는 삶을 꿈꾸며

토마토의 생육 주기는 명확하다. 개화와 착과, 께 순환하고 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선형의 농업에서 자원을 재 활용하며 환경과 공존하는 순환형 농업, 본격적으 조절해 출하한다. 욕심내지 않는 대신, 좋은 품질 로 데이터 쌓아서 효과를 제대로 증명하고 싶어

26세의 나이에 1,800평 온실을 운영하며, 4년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팔릴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청년농부. 그의 토마 토 재배동에 흐르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믿 음, 과학적 농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더 나은 농 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그 물줄기 속에 함

군산의 한 온실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만들어

/이상훈 기자